Weekly 공감

2011.09.07/14 NO.125
gonggam.korea.kr



장마 이겨낸 4대강 대한민국을 푸르게 P19~47

"학력보다 능력이 먼저"… 고졸 취업기회 늘어난다 P6~9

코리아가 또 주목받는다… 核안보정상회의 D-200 P10~11

대한민국의 역사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새롭게 펼쳐집니다

소중한 자료를 기증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개항부터 현재까지를
4개 대주제로 나누어 전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

대한민국의 태동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며, 국민의 자긍심 고양을 통해 국가발전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2012년 12월 광화문국가상징거리(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자료기증 안내

대 상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유물·기념품·생활용품 등

문 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02-3704-9948)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자료정리실 (02-590-6386)

홈페이지

www.museumrok.go.kr

※ 기증된 자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또는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Committe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Established

기대에 부응한 4대강살리기



조선DB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4대강살리기 사업의 홍수방지 효과는 올 장마로 충분히 검증됐다. 또한 깨끗한 식수의 공급과 친환경 수변생태공간의 복원에도 기여했다. 이렇듯 4대강살리기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만들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국가의 공생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8월 말 현재 90퍼센트를 넘으면서 준공을 향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사업의 기대효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의 근본 취지인 홍수방지 효과는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 실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6일에 걸친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평균 6백42밀리미터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는 예년 수준의 2.5배에 달하며, 시간당 30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는 예년의 3.5배에 달한다.

반면 4대강살리기 사업 전과 비교해 4대강 본류의 수위는 2~4미터가량 오히려 낮아졌다. 본류와 연결되는 지류의 수위도 1미터 정도 내려갔다. 장마로 인한 피해액도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보인 지난 1998년과 2006년에 비하면 평균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대규모 준설로 치수(治水) 능력이 대폭 증대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나아가 강 준설을 통해 당초 목표한 13억톤에 달하는 수자원 확보로 이수(利水)효과를 극대화한 것도 물론이다.

이 같은 이치수(利治水) 효과와 함께 4대강살리기 사업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의 공급과 수변생태의 복원에도 기여가 크다. 서울 여의도의 8배에 달하는 하천 주변 경작지를 없애고 9백30킬로미터의 친환경 수변생태공간을 복원했다. 1천5백92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전거길 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었다. 아울러 1천2백개가 넘는 수질개선 사업으로 오는 2012년까지 좋은 물의 공급을 86퍼센트까지 증가시킨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당초 목표한 일자리는 34만개. 이 가운데 직접고용 수(20만개)의 절반인 약 10만개를 차지하는 국토해양부 사업의 경우 당초 목표 대비 88퍼센트의 고용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온다. 이같은 수치만 들여다 봐도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검증된 셈이다.

특히 전체 사업의 절반을 지역 업체에서 수주한 만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산업적 기여도 크다. 직접고용 외에도 자재나 시설지원, 식당이나 물류 등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간접고용을 고려하면 지역경제 기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만들어질 친수(親水)공간을 기반으로 문화와 관광이 아우러진 복합 문화관광 사업과 친수 수변도시의 조성에 따른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은 지역발전에도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국토를 만들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국가의 공생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동시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4대강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필수다. G

Contents NO.125

2011.09.07/14
통권 226호



일러스트 · 유현호

기획특집

엄마야! 누나야! 4대강변 살자

어느 해보다 길고 지루한 장마였습니다. 비 폭탄이라 부를 만큼 많은 비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유례없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강바닥 토사를 준설하고 제방을 정비한 4대강변은 홍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4대강이 홍수를 이겨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난 우리의 4대강입니다.



표지 이야기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유유히 자전거를 타고 강변 갈대숲 사잇길을 달리는 이의 뒷모습이 저절로 시를 떠올리게 한다. 사진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금강 하류. 사진·차백성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9.07/1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FLOWER RO
48


50


52


56

Lounge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22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대구육상대회의 든든한 가이드북

"123호의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특집 덕분에 대회를 보는 동안 〈위클리 공감〉은 저희 집 가이드북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TV를 볼 때나 신문을 볼 때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사전을 찾듯이 살펴봤습니다. 하필이면 왜 뜨거운 한여름에 대회가 개최되는지 등의 평소 궁금했던 점도 알게 되었고요. 아이들에게도 〈위클리 공감〉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네요."

김해찬(경남 진주시 하대동)

가슴이 따뜻해지는 토종 애니메이션

"124호 이 사람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을 제작한 심재명 명필름 대표'의 기사를 읽고 같은 여자로서 참 반가웠습니다. '기존 애니메이션과 달리 원작 동화를 읽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함께 보는 영화'라는 말에 얼마 전 딸과 함께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든 심재명 대표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최수애(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강력하고 지속적인 추석 물가 단속 필요해

"124호 핫이슈 '추석 앞두고 농수산물 수급에 최선' 기사를 읽고 명절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치솟는 제수용품 가격이 이제는 평상시와 같은 가격에 제공되도록 상인들의 각성과 더불어 정부 당국의 강력한 공급대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민생활의 기본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당국의 홍보와 단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홍재경(부산시 북구 화명 신도시로)

아이디어를 세상에 알리는 실천의 힘

"'좋은 아이디어도 실천을 해야 성공한다'는 말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현실에선 이 '실천'을 실천하는 게 어려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123호 G20세대가 G20세대에게 조성훈씨의 인터뷰는 참 감명 깊었습니다. 색다른 아이디어를 단순히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직접 동업자를 구하고 대출도 받으면서 그 꿈을 현실화해 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상만(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새터민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124호 기획특집 '함께 일하는 세상 대표 이철종씨' 기사 중 새터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의지 부분이 마음에 특히 와 닿았습니다. 공정사회를 지향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새터민 문제는 훗날 남북통일과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기본적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경석(대전 중구 문화1동)

이 기사, 아쉬워요

"외국 육성정책의 예시나 설명이 부족해요"



124호 '따뜻한 공생–사회적기업' 편을 읽으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쓴소리' 기사를 읽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외국의 육성정책인 '그라민 뱅크'나 '빅이슈' 등과 같은 육성정책의 예시나 설명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박혜선 (대학생 · 전남 신안군 장산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다면"



124호 '시각장애인 위한 도서출판 점자' 기사는 점자책자 생산부터 촉각도서 개발 등 유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업으로서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졌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송혜림 (대학생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알 림

문화재 정보 앱·웹 활용 아이디어 있으시죠



문화재청은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 및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 확대 등으로 공간정보 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재와 공간정보를 접목하여 스마트폰기기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4년간 11만여 건의 문화재 공간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시스템을 구축, 일반 국민과 중앙·지방행정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용자들과 공간정보를 공유해 왔다.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문화재 공간정보서비스를 사용자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본 공모전은 스마트기기 앱(App) 부문과 웹(Web)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발표는 11월 11일에 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 | 10월 31일까지
참여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
공모 내용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문화재 공간정보 앱(App) 서비스 아이디어, 문화재 공간정보를 이용한 창의적인 웹(Web) 서비스 아이디어
참여 방법 | 공모전 행사홈페이지(gis.cha.go.kr/gis2011)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시상 내역 | 대상 1점(노트북), 최우수상 2점(태블릿PC) 외 우수상 3점
문화재청 www.cha.go.kr ☎ 042-481-4627

어린이가 상상하는 아이디어 지도 다 모여라!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래의 주역들에게 지도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알려주기 위해 제6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기존의 딱딱한 지도를 탈피해 어린이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도를 그리면 된다. 접수된 그림 작품은 지도 및 미술 분야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14일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입상작은 국토해양부가 개최하는 2011 디지털 국토 엑스포 개막식(10월 26일) 때 시상 및 전시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 | 9월 30일까지
참가 대상 | 전국 초등학교 전 학년
참가 방법 | 각 학교별 취합 또는 개별로(1인 1작품 한정)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접수
※단, 작품의 규격은 54.5㎝×39.4㎝(4절지) 크기의 도화지로 제한
시상 내역 | 대상 1명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 및 상품(문화상품권 30만원)을 수여하고, 응모작품을 많이 제출한 학교에는 우수 학교상(국토해양부장관상) 수여. 이 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57점 시상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www.ngii.go.kr ☎ 031-210-2786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9월 20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만큼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3. 최종병기 활, 푸른 소금, 블라인드, 숨, 바다…, 요즘 극장에서 상영 중인 우리 ㅇㅇ들이죠.
4. 일이 있는 그때. 알맞은 때. "식사는 ㅇㅇ에 해라."
5. 좋은 대책과 방법을 궁리하여 찾아내거나 좋은 대책을 세우는 것. "대학 등록금을 줄이는 방안을 ㅇㅇ하다."
8. 솜이나 깃털 등을 넣어 자루 모양으로 만든 야영용 침낭.

세 로

1.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한 이야기.
2.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제도를 줄인 말.
3. 다음은 무슨 강일까요? "전국 4대강사업 구간 16개 보(洑) 가운데 유일하게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ㅇㅇㅇ의 '죽산보'가 완공을 앞두고 8월 31일 오전 전남 나주시 죽산면 건립 현장에서 통선문(通船門) 시운전을 선보였다."
6. 구슬처럼 방울방울 맺힌 땀.
7. 산이나 들, 바닷가 등지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것.

〈Weekly 공감〉 123호(8월 24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자장면 3 아가 4 이신바예바 6 담금질 7 승촌보
세로 1 자메이카 2 물가 3 아바 5 예치금 6 담보

〈Weekly 공감〉 123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성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김연주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5동
이채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오정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지은주 · 충북 제천시 송학면



조선DB

학력보다 실력이 우선인 열린 고용사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소기업 윌테크놀로지에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 참석해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이제는 학력보다 능력이 먼저다"

이 대통령, '학력차별 안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정사회추진회의 주재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제시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에게 공생발전을 강조한 데 이어, 9월 2일 '학력차별 없는 회사'인 윌테크놀러지에서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이 마련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보고받았다.

'공생발전'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공생발전'을 제시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8월 22일 제72차 라디오연설에서도 공생발전을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생발전'은 우리 사회도 자연생태계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발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윌테크놀러지란 중소기업에서 열었다. '공생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반도체 검사장치 전문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직원 2백30명 중 고졸 출신이 절반에 육박하는 97명(42퍼센트)에 달하며, 최근에도 고졸 출신 11명을 채용했다.

2001년 창업 이후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경영성과를 배분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부터 의무적으로 고교(취업) 비율을 상당히 올려줘야 한다. 그래야 고교생이 나와서 전문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졸 출신이 세상을 사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상고 출신이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면서 "어제 30대그룹 총수들로부터 고졸 출신들을 뽑아 인재로 키우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는 학력보다는 능력"이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그 분야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일찍 기술을 배워 명장이 되는 게 낫지, 서울대 공과대 나왔다고 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병무청 등과 함께 마련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보고했다.

"일찍 기술 배워 명장 되는 게 낫다"

지난 8월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서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과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4대그룹 회장을 비롯한 28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생발전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공생발전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을 하되 시혜적 협력이 아니라 서로 '윈-윈(win-win)'하고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업인들도 공생발전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공생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우리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공생발전을 위한 거래구조를 선진화하고 모든 부문에 있어 협력기업의 체질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DB

월테크놀로지는 학력 차별 없는 열린 고용으로 유명하다. 이 회사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티셔츠에 사인을 해달라는 직원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다.

"공생발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중소기업계와 협력을 강화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2,3차 협력업체 육성과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과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옥 여사도 '공생발전' 전도사로 나섰다. 김윤옥 여사는 지난 9월 1일 청와대에서 금융업계 지점장급 이상 여성 임원 70여 명과 오찬을 같이하면서 "학력차별 없는 사회에 금융인들이 관심을 가져달라. 능력 있는 여성이 최고위직, CEO로 가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제11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국외 참가자 2백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도 "기후변화와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 또한 공생발전의 핵심 의제"라면서, 이에 관한 여성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산하 60개 공공기관은 9월 1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발전 실천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공공기관 대표들은 전통시장 보호 육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2010년 80억원 수준이던 지경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수요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구매를 연간 2백4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동반성장 실천을 위한 전담반 운영, 해외 동반진출,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확대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G

글·배진영 기자

일반계 고교 졸업자도 軍입영 연기 가능

정부, 취업·임금·승진서 학력차별 철폐 '열린 고용사회' 만든다

우리나라는 뜨거운 교육열로 유명하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다. 교육열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그늘도 있다. 교육열의 배경엔 '학력차별'이라는 사회적 병리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을 나와야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 결과 학력인플레가 극심하고 산업계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정부가 학력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학력보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다.

일반계고 졸업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고 졸업자와 제조업 종사자만 군대 가는 날짜를 미룰 수 있었다. 입영일자도 본인이 정할 수 있다. 대학생에게만 적용되던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 대상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고졸인턴은 올해 1만2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은 현재 1인당 1천5백만원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2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진학률이 80퍼센트에 이르는 등 심각한 학력인플레와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축소하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청년인턴 고졸자 비중 50퍼센트로 확대

가장 주목되는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이다. 고용과 직결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고졸채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고졸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 운영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 등 고졸자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낸 후 적정한 채용요건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의 6퍼센트인 '기능인재(기능직 9급) 추천채용'을 10퍼센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선DB

고졸자들의 공공분야 취업이 확대된다. 정부는 고졸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고졸인력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13일 개최된 특성화고교생 채용박람회.

청년인턴제도 강화한다. 올해 3만2천명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4만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절반은 고졸인턴으로 채용한다. 청년인턴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3학년 2학기에 참여하는 재학생을 늘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할 경우에 지급하는 취업준비금을 현재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병역문제도 개선한다.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고졸취업자 범위를 특성화고 졸업 후 제조업 취업자에서 일반계고, 전업종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처럼 입영날짜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서 익힌 기능을 군 복무기간에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를 전공한 후 기업에서 자동차정비 업무를 하다가 입영하면 헬기나 기계 수리병으로 복무하는 식이다.

학력철폐 성과 높은 공공기관엔 인센티브

채용관행도 바꿔 나가기로 했다. 스펙과 시험 위주인 채용방식을 경력과 인턴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능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인턴 근무를 통한 채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도 인턴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한다. 청년인턴 중 고졸자 비중을 현재 4퍼센트에서 내년 20퍼센트로 5배 증원하고 이들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어렵게 취업한 후에도 고졸출신의 서러움은 이어진다.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연공과 학력 중심의 임금·승진제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연봉제 성과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졸자도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보수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에도 성과를 기준으로 한 임금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인 연공급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지원을 매년 1백20개사 이상에 제공할 계획이다.

'묻지마 진학'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로교육 과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교사들의 연수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달 1회 토요일에 '진로체험의 날'로 지정하고 진로체험과 멘토링을 실시한다. 또 '지방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등 직장체험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에 기업을 방문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

구 분	주요과제	비 고
직업인 꿈키우기	'진로체험의 날' 지정·운영	매달 1회, 토요일
	마이스터·특성화고생 현장실습·인턴 비용 세액 공제	비용의 25% (대기업 3~6%)
능력중심 채용	(공무원) 인턴방식의 기능인재 추천채용(기능직 9급) 확대	특채의 6%(50명)→10%(85명)
	고졸자의 중소기업 인턴제 확대	1만2천명(2011년)→2만명(2012년)
	취업지원금 상향 조정 (제조업·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 취업 청년에게 직접 지급)	1백만원(2011년)→2백만원(2012년)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마이스터·특성화고교생 채용시) 확대	1인당 1천5백만원→2천만원
	학교(전공)-직장(직무)-군대(병과) 간 연계 강화	
	고졸 취업자 입영연기(24세까지) 대상 확대	특성화고, 중소제조업→일반고, 전 업종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 적용대상 확대	대학생→모든 입영 대상자
개방된 인사관리	(공공기관) 고졸에 대한 차별적 인사 규정 개선	(예)고졸 후 입사 4년차 이상은 대졸과 동등 직위 부여
	사내대학 입학대상 확대	사내대학 설치기업 소속 직원→협력업체 직원도 허용
능력중심 사회여건	성공한 최고 숙련 기술인 '국민 스타화'	대한민국 명장, 기능 한국인 등 적극 발굴·홍보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구성·운영	현장 숙련기술자, 기능장, 기술사 등
	정부위원회에 현장전문가 참여 확대	현재는 학계 중심(43%)

전문 기술 기능인이 대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능력 중심의 사회를 위한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 기술 기능인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대한민국명장' 등 최고 숙련기술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기능인이 '국민스타'가 되도록 한다. 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을 구성해 현장의 전문가들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수 등 이론 중심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위원회'에도 현장 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G

글·변형주 기자



내년 3월 26일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게 돼 또 한 번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모습.

글로벌 코리아! 이번엔 核안보정상회의

47개국 정상·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안보올림픽'

핵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2012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내년 3월 26~27일 열린다. 지난해 열렸던 G20회의가 세계 경제문제에 관한 최상위급 회의였다면, 핵안보정상회의는 안보문제에 관한 세계 최상위급회의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는 2010년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핵테러 방지대책의 심화방안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제기된 핵안전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는 2012서울핵안보정상회의(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린다.

핵안보정상회의는 21세기 국제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포럼으로서, 전 세계 핵물질과 핵시설이 테러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방호조치 강화와 국제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회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프라하 특별연설에서 "핵테러 대처를 위해 향후 4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겠다"면서 "2010년 중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데서 비롯되었다.

핵안보정상회의 일정

2011년 9월 8일 핵안보정상회의 공식홈페이지(www.seoulnss.go.kr/www.thenuclearsecuritysummit.org) 개설
2011년 9~10월 행사지원요원(support staff) 공모
2011년 9월 7일 '2012서울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의 미래: 후쿠시마 이후' 세미나
2011년 9월 8~12일 핵안보 영화·다큐상영 (준비기획단–올레TV)
2011년 11월 교섭대표 회의 (핀란드)
2012년 1월 교섭대표회의 (인도)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직전 (서울)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규모 정상회의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는 47개국 정상과 UN·국제원자력기구(IAEA)·EU 대표가 참석했다. 이 회의는 "지구상에서 핵테러리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년 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코뮈니케를 채택했다.

내년에 열리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조선DB

규모의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이 회의에는 2010년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했던 47개국과 3개 국제기구(UN·IAEA·EU) 대표 외에 국제사법형사기구(INTERPOL) 대표도 참석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직후 "G20정상회의가 세계 경제분야의 최상위 정상회의라면,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안보적 측면과 원자력 산업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최상위 안보회의"라고 평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계기로 핵안전도 논의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초청대상을 선정하고, 회의기간 중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및 선진국과 후진국 간 입장차이를 조정하는 교량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비전과 실천조치들이 담긴 정상선언문인 '서울 코뮈니케' 성안작업도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김봉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는 내년 회의의 주요 의제로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원자력 안전문제 ▲더티 밤 등 방사성 테러 문제 등을 꼽았다.

이 중에서 원자력 안전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새롭게 제기된 과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테러리스트의 원전시설 공격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외교통상부는 "세계 50개국 이상의 정상이 대한민국에 모여 핵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올 11월 29일에는
부산서 세계개발원조총회

내년 3월 열리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이전에 한국에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국제회의가 열린다. "나누는 기쁨, 세계는 하나!" "다함께 잘사는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가 그것이다.

오는 11월 29일~12월 1일 부산 Bexco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는 160여 개 개발도상국 및 공여국 정부 정상·각료·국회의원, 70여 개 국제기구대표, 시민단체대표 등 약 2천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는 빈곤감축 및 지속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고, 21세기 새로운 개발협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부산선언(Busan Outcome Document)'을 채택한다.

부산세계원조총회는 특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 때문에 많은 나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콰베나 듀포르(Kwabena Duffour) 가나 재정경제기획장관은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에는 희망"이라면서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대에 대해 조태열 외교통상부 개발협력대사는 지난 8월 11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원조에서 개발로 초점이 이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해 성공담만 늘어놓으면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는 공허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 만큼 실패담도 정교하게 다듬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산시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8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 3백60명과 진행요원 2백50명을 선발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독일 베를린에서 '핵포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는 전제 아래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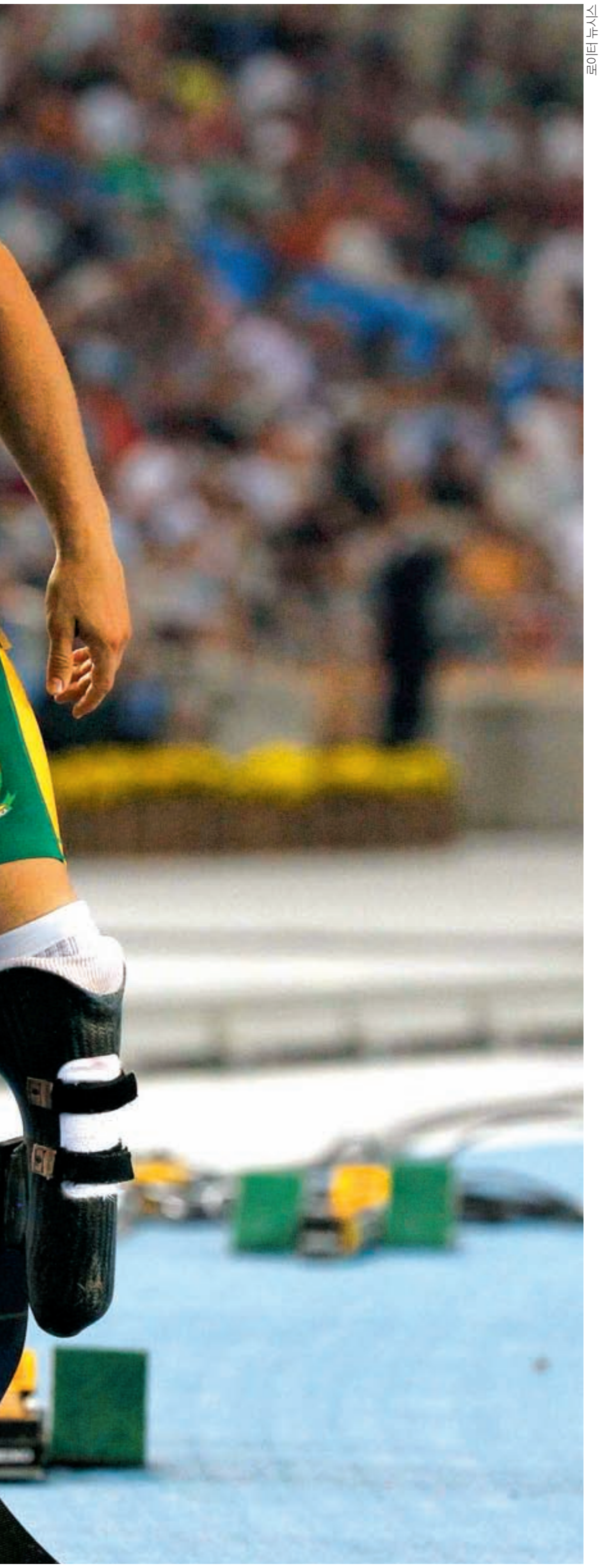
D-200 맞아 본격 홍보 들어가

정부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 10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올 3월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서울핵안보정상회의 D-200을 맞아 8월 말부터 본격적인 준비와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에는 준비기획단장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35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G 글·배진영 기자



인종과 국적, 장애도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늦여름의 대구스타디움에는 세계 각국 젊은이들의 뜨거운 우정만 가득했다. 지난 8월 29일 남자 400미터 달리기 준결승에 출전한 남아공의 '블레이드 러너'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이날 조 1위로 결승에 진출한 자메이카의 저메인 곤잘레스의 손을 붙잡으며 축하인사를 건네고 있다.


로이터 뉴시스

인종과 편견 넘어 다함께 하나였다

교차하는 환희와 절망. 이변과 경이의 연속. 8월 27일 막이 오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연일 세계의 육상팬들을 흥분과 경탄, 놀라움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대구세계대회는 9월 4일 폐막일까지 세계 2백2개국에서 출전한 1천9백45명의 선수가 47개 종목(남자 24, 여자 23)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겨루었다.

이번 대구세계대회는 사상 최다 참가국, 역대 최대 규모 선수 출전이란 기록을 남겼다. 출전국 가운데 최대 규모는 미국 선수단(1백55명). 한국은 남자 35명, 여자 25명 등 총 63명이 나서 선수단 규모로는 5위였다.

한국 선수 가운데에서는 멀리뛰기의 간판 김덕현(26·광주시청)이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예선을 거쳐 결선에 진출하게 됐으나 세단뛰기 예선에서의 부상으로 결선 경기에는 불참했다.

이번 대구세계대회에서는 육상계 최고스타인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남자 100미터 결승 경기에서 부정출발로 실격당하는가 하면 남자 110미터 허들 결승에서 세계기록 보유자인 다이론 로블레스(쿠바)가 사진판독 결과 진로방해로 실격되는 등 이변이 속출했다.

감동의 순간들도 있었다. 세계선수권대회 진출 자체가 화제였던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남아공)가 남자 1600미터 계주 결승에까지 오르며 팬들을 열광케 했다.

피스토리우스는 앞서 출전한 남자 400미터 경기에서 예선은 통과했으나 준결승에서 조 최하위에 그쳐 결승 진출이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경쟁라인에 섰던 선수들은 결승 진출이 좌절된 피스토리우스에게 따뜻한 악수를 건넸다. 이게 바로 스포츠란 걸 보여주듯이. G

글·박경아 기자

환희와 탄식

AP 연합



새로운 '인간총알'이 탄생했다. 지난 8월 28일 자메이카의 요한 블레이크(오른쪽)는 우사인 볼트가 부정출발로 실격당한 남자 100미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새롭게 등극했다.

AP 연합



1

연합



2



AP 뉴시스



4

스포츠조선



5

1 "우승 세리머니는 이쯤 돼야!" 케냐의 이지키엘 켐보이는 역시 남자 3000미터 장애물 경기의 절대강자였다. 그는 2위 선수를 넉넉히 앞지르며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2 명불허전이었다. '경보의 여왕' 러시아의 올가 카니스키나는 여자 경보 20킬로미터에서 1위에 올라 대회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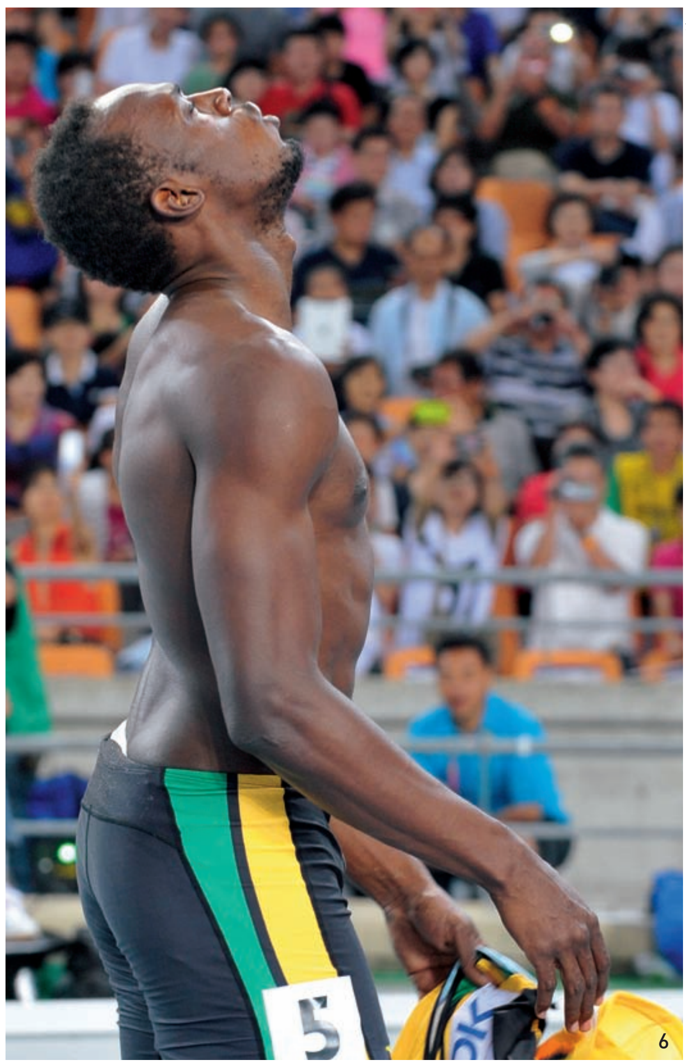
3 보츠와나의 아맨틀 몬트쇼가 지난 8월 29일 여자 400미터 달리기 결승전에서 우승한 후 국기를 활짝 펼쳐 들며 기뻐하고 있다.

4 "일어나!" 남자 1500미터에 출전한 프랑스의 메디 발라는 경기 중 넘어져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

5 러시아의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가 지난 8월 30일 열린 장대높이뛰기 2차 시기에서 실패한 직후 매트에 주저앉아 있다.

6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가 지난 8월 28일 열린 남자 100미터 결선에서 부정출발로 실격한 직후 웃통을 벗은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조선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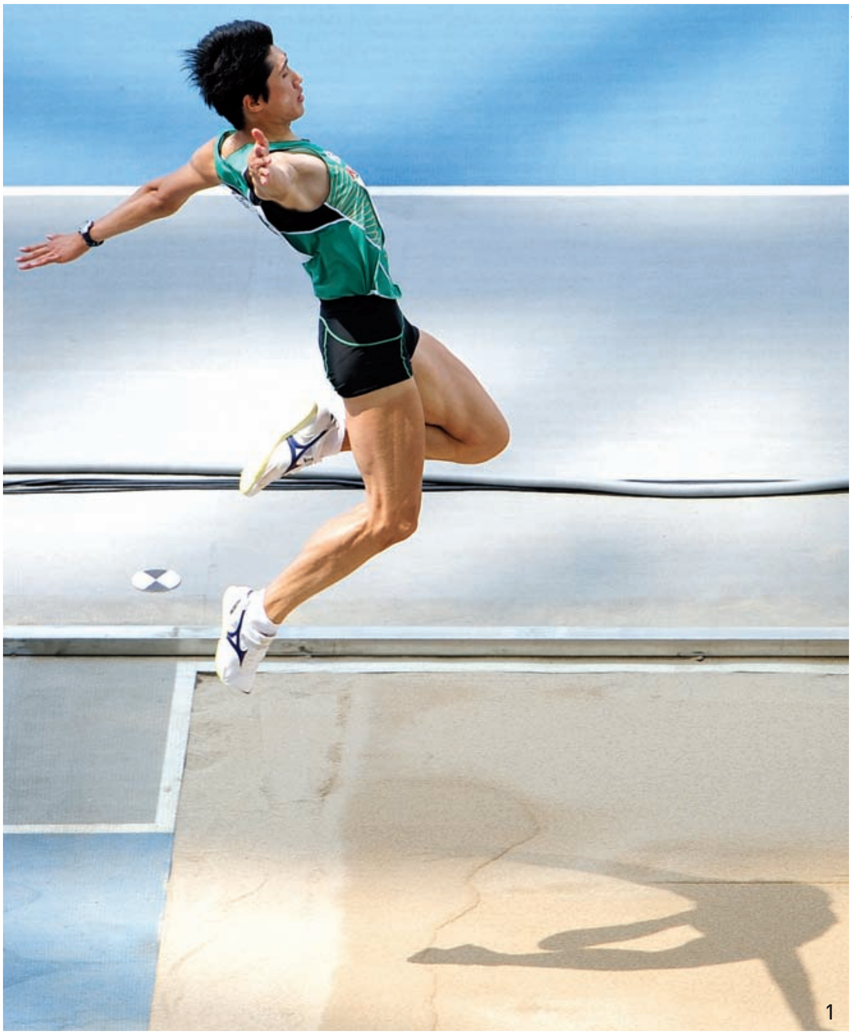
6

뉴시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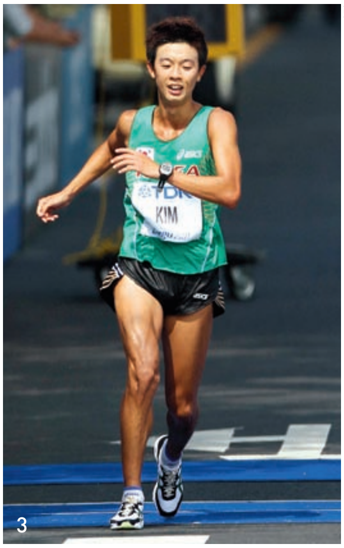
파이팅! 코리아



뉴시스



연합



연합

1 지난 9월 1일 남자 멀리뛰기 예선에 출전한 김덕현이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김덕현은 예선을 통과했지만 발목 부상으로 2일 결선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2 남자 1600미터 계주 경기. 한국은 비록 결선엔 오르지 못했지만 대회 첫 한국신기록을 이뤄냈다. 3번주자 이준이 2번주자 임찬호로부터 바통을 받아 이어 달리고 있다.

3 지난 8월 28일 남자 경보 20킬로미터 경기에 출전한 김현섭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김현섭은 이날 6위에 올라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열정의 대구!


뉴시스


연합


뉴시스


조선DB


스포츠조선

4 “너무 더워요!” 여자 7종경기에 출전한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카 도베리가 얼음주머니를 머리에 대고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5 장난감 확성기를 든 한 여자 어린이가 지난 9월 1일 열린 여자 높이뛰기 예선전을 응원하고 있다.

6 지난 9월 1일 대구스타디움을 찾은 외국인 남성들이 웃통을 벗은 채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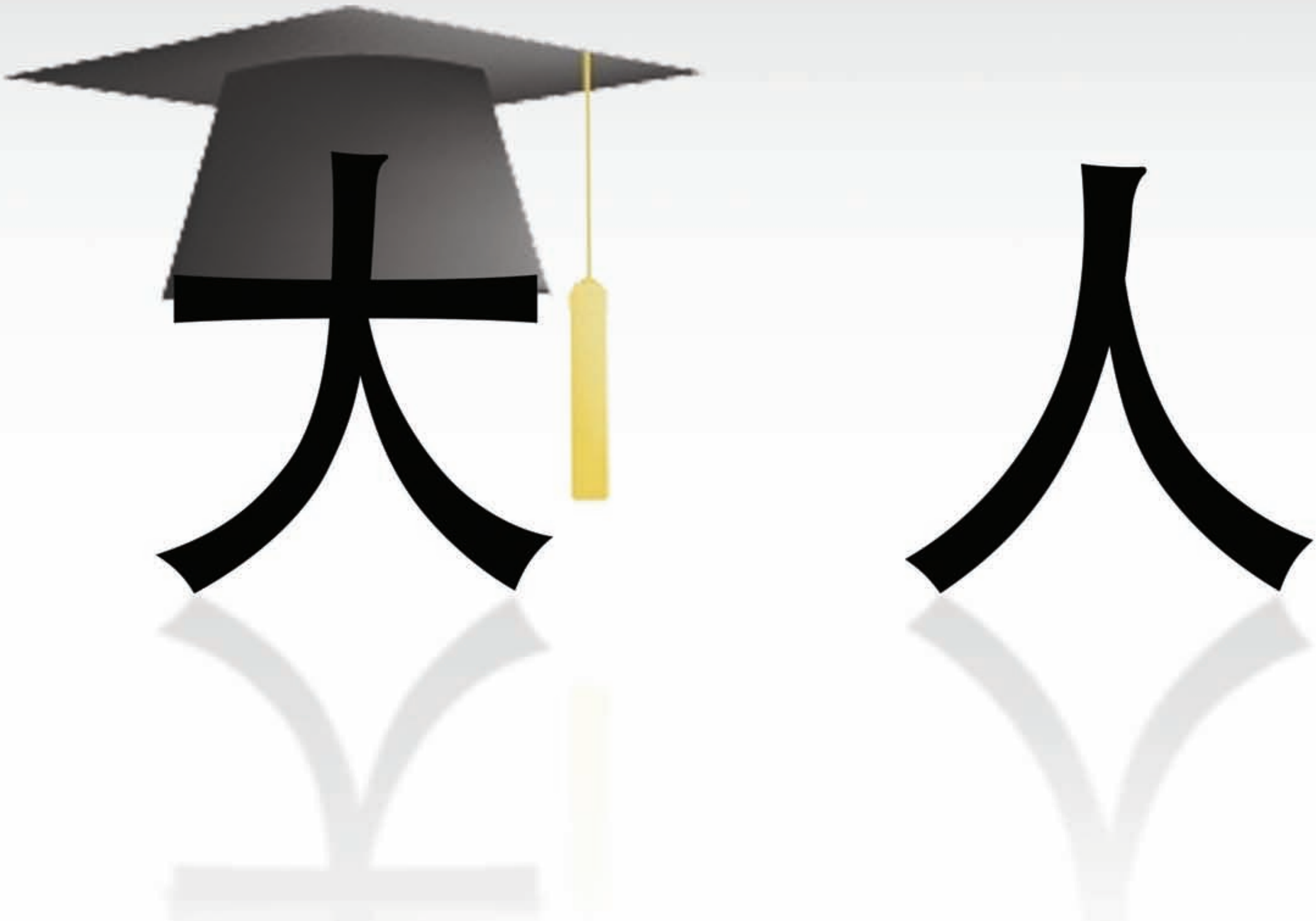
7 태극기와 자메이카 국기를 페이스 페인팅한 호주인 자매가 앳된 얼굴로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8 “태양은 싫어!” 지난 9월 1일 여자 높이뛰기에 출전한 아일랜드의 데이드레 라이언이 양산으로 태양을 가린 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1년 '우리가 만드는 공정사회' 대학생 광고공모전 수상작

공정사회

우리가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http://fair.korea.kr에서 만나보세요!



편견을 벗으면 사람이 보입니다.

학력, 학벌은 더 이상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차별받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먼저보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꿈 꿉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일러스트 · 유현호

4 대 강 살 리 기

강바닥 준설·제방 보강 4대강이 강해졌어요

어느 해보다 길고 지루한 장마였습니다. 비 폭탄이라 부를 만큼 많은 비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유례없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강바닥 토사를 준설하고 제방을 정비한 4대 강변은 홍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4대강이 홍수를 이겨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 거듭난 우리의 4대강입니다.

유례없는 최장 장마 4대강 사업으로 이겨냈다

연 강수량 절반인 평균 6백여 밀리미터 폭우… 피해는 예년의 10퍼센트 불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완성하는 올해는 6월 말부터 한반도에 진입한 장마전선이 유례없는 폭우를 쏟아냈다.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에서는 비의 공세를 초긴장 상태로 맞이했다. 하지만 장마가 지나고 드러난 4대강의 홍수피해는 폭우 규모에 비해 예년보다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긴장과 초조, 안도와 희망이 교차한 올 여름 장마였다.

4대강 준설 효과

준설 전





경남 창원시 북면 외산리 오곡마을. 2006년 7월 장마 때 홍수에 잠긴 모습이다. 당시 마산 1백34밀리미터, 진주 2백3밀리미터, 합천 1백69밀리미터의 폭우가 내렸다.

준설 후



오곡마을의 2011년 7월 장마때 모습. 한눈에 봐도 홍수피해가 전혀 없다. 당시 창원 1백87밀리미터, 진주 3백12밀리미터, 합천 2백4밀리미터의 폭우가 내렸다.

올해 말 4대강을 종주하는 수변 자전거도로(1천5백92킬로미터), 수변·생태공원(2백25곳), 체육·휴게 시설 등이 조성되면 4대강이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은 사업 종료 이전부터 효과를 톡톡히 발휘했다. 올해 장마 기간에는 예년보다 강우량이 늘었지만 준설 덕분에 피해가 크게 줄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하천 수위는 준설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7월 홍수량과 과거 동일한 규모의 홍수량이 흘렀을 때의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를 비교한 결과, 2~4미터가량 수위가 저하했다. 구체적으로 한강(여주) 2.54미터, 낙동강(상주) 3.78미터, 금강(연기) 3.36미터, 영산강(나주) 2.13미터 등이다.

이와 함께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낮아져 4대강 유역에서는 농경지, 가옥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본류 영향을 받는 지류 구간의 평균 저감 수위를 보면 섬강(한강 지류)은 0.5미터, 황강(낙동강 지류)은 1.3미터, 미호천(금강 지류)은 0.5미터, 황룡강(영산강 지류)은 0.6미터 수위가 낮아졌다. 국토해양부는 "본류, 지류 동반 홍수위 저하는 본류를 먼저 정비했기에 거둘 수 있었던 효과"라며 "지류를 우선 정비했을 경우에는 기대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한강 | "4대강(살리기) 하기 전에는 피해를 많이 봤죠. 나도 몇 번 피해를 봤어요. 농사 수확도 못 보고 집 밑에까지 물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올해에도 비가 많이 와서 논밭으로 물이 들어오려니 생각했는데, 그런 피해가 전혀 없고 아주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이근원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궁리)

낙동강 | "이전에는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았었죠. 농사를 한 10년 지으면 2, 3년 먹을 정도고…. 평소 같으면 이 비에 물이 어느 정도는 올라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년보다 수위가 상당히 낮았어요."

(김명수 ·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금강 | "강바닥이 높아서 일 년이면 한두 번 정도 넘치던 것이 한 십 년 사이에 서너 번 있었는데…. 올해에도 많은 비가 온 것으로 아는데 강바닥이 얕아져 침수가 안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두순 · 공주시 우성면 평송리)

영산강 | "재작년(2009년) 7월에는 2백밀리 정도 비가 월초하고 중순 두 번인가 왔어요. 하루 강우량 4백20밀리미터급 비가 와서 한 달에 두 번이나 침수됐다 빠지고 했습니다.… 이번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수위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비해 수위가 한 1미터 이상 낮아졌어요." (김창원 · 전남 나주시 삼영동)

사는 곳은 다르지만 같은 목소리다. 유난히 길고 비가 많았던 올 여름 장마를 무사히 넘겼다는 4대강 인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유례없는 올 여름 장마에도 불구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 덕분에 홍수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홍수 이겨낸 4대강'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9월 14일까지)와 다음(9월 28일까지)에서 검색어 '4대강'을 입력하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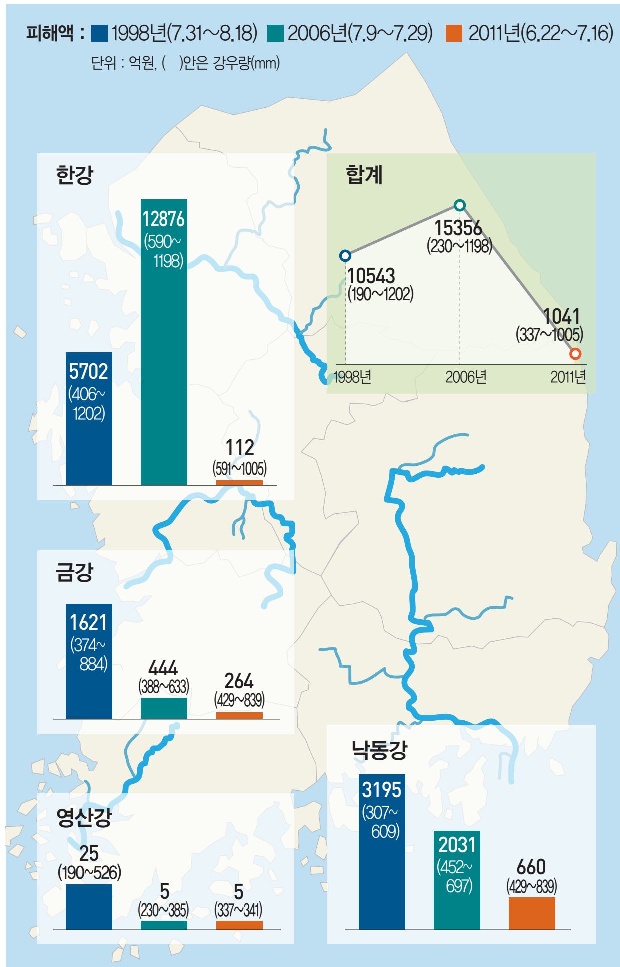
4대강 주민들 목소리 포털서 동영상 시청 가능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가 이러한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번 유례없는 장마와 폭우를 통해 4대강살리기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홍수피해 예방에 확실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자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티즌과 소통하고, 홍수 극복의 현장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동영상 서비스를 준비했다.

올해 장마는 한마디로 기록적인 장마였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기 전 우리나라에 들이닥친 올 장마는 마치 4대강살리기 사업을 시험이라도 하듯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다.

먼저 장마 기간(6월 22일~7월 17일)에 비 온 날이 예년보다 일주일이 늘어났다. 열흘 연속 장맛비가 온 것은 관측사상 최장 기록.

4대강의 장마기간 중 홍수 피해 비교



강우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평균 강우량은 6백42밀리미터로 예년의 2.5배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두번째로 많은 강우량이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이 1천2백45밀리미터란 점을 놓고 볼 때 장마기간 25일 동안 1년에 내릴 비의 절반이 쏟아진 셈이다.

폭우도 잦았다. 시간당 30밀리미터 이상의 폭우는 전국에서 65차례 쏟아졌다. 이것도 예년보다 3.5배가량 많은 기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4대강의 하천 수위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기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정작 4대강 유역의 수해는 비슷한 규모의 강우량을 기록한 다른 해에 비해 급감했다. 호우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되고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하면 4대강 유역의 피해 규모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효과 (경남 창원시 신촌지구)



2010년 7월 16일 1백37밀리미터의 집중호우로 침수된 모습이다.



2011년 6월 25~26일 장마 때 모습. 당시 1백36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침수되지 않았다.

출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의 올 장마 기간 중 수해 규모는 1천41억원으로, 1998년 장마(7월 31일~8월 18일) 중 1조5백43억원, 2006년 장마(7월 9~29일) 중 1조5천3백56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무엇보다 4대강변의 상습 침수지역이 홍수피해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다. 한강의 범람 피해를 자주 입던 경기도 여주군과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령군, 합천군 등 홍수피해가 잦은 지역에서도 올해에는 예년보다 많은 강우량에도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다.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가 비켜간 것은 4대강 준설효과 덕분이다.

지난 7월 홍수량과 과거 동일한 규모의 홍수량이 흘렀을 때의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를 비교한 결과 ▲한강(여주) 2.54미터 ▲낙동강(상주) 3.78미터 ▲금강(연기) 3.36미터 ▲영산강(나주) 2.13미터 등으로 2~4미터가량 수위가 저하됐다.

그동안 일부 환경단체들이 본류보다 지류 우선 정비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 홍수 기간 중 본류를 준설함으써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류 준설이 지류까지 포함해 4대강 유역에서 농경지·가옥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이란 분석이다. 본류 영향을 받는 지류 구간의 평균 수위가 낮아진 예를 들면 ▲섬강(한강 지류) 0.5미터 ▲황강(낙동강 지류) 1.3미터 ▲미호천(금강 지류) 0.5미터 ▲황룡강(영산강 지류) 0.6미터씩 낮아졌다.

이 같은 본류·지류 동반 홍수위 저하는 본류를 먼저 정비했기에 거둘 수 있었던 효과이며, 지류를 우선 정비했을 경우에는 기대하기 불가능하다.

준설효과 입증… 농지 리모델링도 침수 탈출 도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도 침수피해 예방에 한몫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준설토 가운데 비옥토를 골라내 강변의 상습침수 농경지의 높이를 돋워 주는 영농환경 개선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비를 들여 전국 1백40개 지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 4대강살리기와 함께 완공된다.

물론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낙동강에서 지난 6월 말 준설 예인선이 전복돼 선장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일부 공사현장에서 가물막이나 공사 중인 제방이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가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예년의 비슷한 규모 강우량을 기록한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의 홍수예방 효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 연말 완공 예정인 4대강살리기를 더욱 안전하게 실수 없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8월 말 현재 4대강의 전체 공정은 약 90퍼센트 마쳤다. 10월부터 4대강에 설치하고 있는 16개 보(洑)도 속속 준공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4대강살리기 이후보다 일관된 물관리를 위해 강수량·하천수위·유량 등에 대한 '국가공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공인시스템이란 물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문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문자료를 국가가 검증하고 공인하여 배포하는 시스템이다. 수문자료는 강수량, 하천수위, 하천유량, 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수문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로, 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 홍수피해 예방에 사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5일 수문자료 공인시스템을 위해 '수문자료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수문자료 공인시스템을 통해 수문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국가 수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전국 16개 보 수력발전소 가운데 처음으로 충남 연기군 남면의 금강 세종보(구 금남보) 수력발전소가 지난 8월 31일 개소식을 갖고 전기 생산에 들어갔다.

16개 보 중 금강 세종보 수력발전 첫 가동

연간 1천2백만킬로와트 생산… 인구 1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

4대강 16개 보 가운데서 금강의 세종보가 처음으로 수력발전을 시작했다. 홍수조절 능력과 함께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16개 보 수력발전소 중 처음으로 충남 세종시 세종보(구 금남보) 수력발전소를 8월 31일부터 조기 가동해 전기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수력발전의 장점은 화력발전과 비교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이면서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종보 수력발전소는 7백70킬로와트 규모의 소수력발전 3기로 구성돼 있으며 총 발전용량 2천3백10킬로와트, 연간 발전량 1천2백만킬로와트에 이른다. 이는 1만명 인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2만 배럴의 원유수입 대체효과 및 8천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되는 16개 보의 수력발전소는 세종보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가동하며 친환경 청정에너지 생산을 통해 국가 전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4대강 16개 보의 수력발전소 총 발전용량은 5만7백56킬로와트, 연간 발전량은 총 2억7천1백만킬로와트다. 이는 팔당댐의 연간 발전량 4억5천만킬로와트의 절반이 넘는 규모이며 25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따라서 16개 보의 수력발전소가 모두 완공되면 45만4천배럴의 원유수입 대체와 18만3천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수력발전은 대규모 다목적댐에서 생산되는 기존의 수력발전과 달리 소규모의 하천에서 적은 양의 물만으로 에너지를 얻어 전력을 생산하며 보통은 1만킬로와트 이하, 우리나라에서는 3천킬로와트 이하 발전용량의 수력발전을 소수력발전으로 정의한다.

발전방식에 따라 수로식, 댐식, 터널식으로 구분한다. 수로식은 경사가 급한 강의 중·상류지역에, 댐식은 하천경사가 적고 유량이 많은 지점에 적합하다. 또 터널식은 하천 형태가 호리병 입구 같이 좁아지는 지점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G

글·박경아 기자

남한강변에 웰빙 생태관광이 익는다

이포보 주변 상권 살아나… 수변공원도 모습 갖추고 개장 '준비 끝'

경기도 여주군은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문화와 레저를 결합한 생태 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비상을 꿈꾸고 있다. 홍수 때는 흘러넘치고, 오염이 돼서 또는 마땅히 즐길거리가 없어서 그저 바라만 봐야 했던 강이 '사람과 함께하는 강'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희 기자

개장을 앞둔 여주군 대신면 대림동산 전망덱에서 내려다본 이포보 주변 전경. 정돈된 초지 오른쪽으론 '아름다운 명품보'로 꼽히는 백로 알 형상의 이포보가 보인다.

4대강살리기 사업 중 남한강개발사업의 중심인 여주군은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 있어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비교적 조용한 마을이었다. 하지만 요즘 여주군민들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오염은 물론 여름 홍수 때마다 범람해도 마땅히 손을 대지 못했던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강이 생태공원, 인공습지, 자전거도로 등이 조성되며 살아 숨 쉬는 강으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주군은 올해 장마를 겪으면서 민심이 오히려 좋아졌다. 남한강복원사업의 준설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했기 때문이다. 강천면 굴암리 이장 윤섭남씨는 "굴암리 역시 매년 장마 때마다 농경지 침수는 물론 가옥, 마을회관까지 수몰되던 지역이었지만 올해는 한 건도 침수된 곳이 없었다"면서 "마을 사람들이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장·자전거도로 완비… 막국수촌 등 기대감

지난 장마를 통해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해 더욱 굳건해진 군민들의 신뢰는 차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강과 함께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주보, 강천보, 이포보 등 3개 보(洑)를 중



심으로 한 생태공원, 인공습지, 자전거도로 등 조성 사업은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돼 침체돼 있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실제로 이포보 주변엔 맛집과 부동산 업소들이 생겨나는 등 일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농협 천서지점 대신농협의 문성모 차장은 "주민들 사이에선 이포보가 생긴 당남지구에 신도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오가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일대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있어 상권이 차츰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 차장은 이어 "본격 개방이 되면 이포보가 있는 당남지구 일대는 문화·관광·레저 인구가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인근 천서리막국수촌 상인들 역시 하루빨리 공사를 마치고 개방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주군 남한강개발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퍼센트, 그중 3개 보는 98퍼센트 완공된 상태다. 지난 8월 29일 찾아간 한강 3공구 이포보 당남지구 일대는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토캠프장은 부대시설 조성 사업이 한창이었다. 바로 옆 웰빙캠프장은 푸른 잔디 위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조성돼 있었다. 이어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자연학습장도 모습을 갖추고 개방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수계 강원 화천도 물길 따라 1백 리 자전거길 만들어

자전거족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여주군 자전거도로 72.1킬로미터 구간 역시 지난 3월 선형 및 기초공사를 마친 데 이어 현재 자전거 보관대 보강 등 개방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일부 통제 구간을 제외하곤 벌써부터 자전거족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관계자들의 말이다.

자전거족들의 기대를 모으는 건 여주군 한강 3공구 구간뿐 아니다. 4대강살리기 북한강 화천지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17일간 북한강변에서 개최한 '쪽배축제'를 통해 붕어섬과 대이리 일대 부분 개방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전거도로 일부도 함께 개방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붕어섬에는 산책로와 관찰덱 등이 조성됐으며 대이리 일대 대이지구는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화천군은 6.3킬로미터 구간의 하천을 정비 중이며 자전거도로 8.2킬로미터도 9월 말이면 조성이 완료된다. G 글·박근희 기자

김춘석 여주군수

"수도권 남부의 휴양허브… 1천5백년 만의 기회"


여주군청

김춘석 여주군수는 7월 1일 취임 1주년 취임사를 통해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해 화제를 모았다. 올해 장마 때 4대강 준설효과로 4대강살리기 사업 지지 여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라는 군정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한강개발사업은 여주군에 1천5백 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표현하신 바 있습니다. '1천5백 년 만의 기회'란 어떤 의미인지요.

여주군은 서기 475년 문헌기록에 소개된 이래 1천5백여 년 동안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홍수 피해 등으로 여주를 발전시키는 데 애로가 많았지만 4대강 사업을 토대로 문화·역사·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에서는 지역업체의 사업참여 및 지역민의 고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공사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의 건설 장비 및 인력투입, 자재구매 확대를 추진해 지역 군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 후 여주군은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강개발사업의 최대 수혜지역은 여주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국비가 1조9백여 원이 여주 지역에 투입됐습니다. 준설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3개 보 건설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 주변엔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등이 조성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군은 수도권 인접 웰빙 휴양관광레저 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군은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은 어떻습니까?

남한강개발사업은 여주군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 퇴적토 준설효과로 올해 강우 피해는 예년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군민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남한강개발사업 외에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 등이 완료되면 서울을 비롯한 광주·이천·용인 등 인근 도시 주민들이 주말에 전철을 타고 오거나 자전거도로로 관광할 수 있게 되니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관광개발과 더불어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문화 공간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남한강을 중심으로 사회간접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복지 공간을 더욱 확충해 고품격 휴양관광 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낙동강 제1경' 국민관광지 되겠지예!

"침수피해 걱정도 덜고 상주보·낙단보 볼거리 더해져 관광객 부쩍 늘어"

삼백의 고장 경북 상주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시발점이다. 낙동강에 세워지는 8개 보 가운데 가장 상류에 상주보와 낙단보가 들어선다. 상주보와 낙단보가 위용을 드러내면서 인근 관광지인 '경천대'에도 하루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상주시는 낙동강살리기를 기회로 삼아 도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낙동강 1천3백 리 물길 중 하늘이 스스로 만든 곳.'

경북 상주 경천대(擎天臺)는 '낙동강 제1경'으로 불린다. '하늘이 스스로 만든 경치'라 해서 '자천대(自天臺)'란 이름으로도 한때 불렸다. 지난 8월 31일 상주를 찾았을 때 낙동강물은 경천대를 유유히 감아 흐르고 있었다. 시인묵객들이 드나들었다는 경천대는 홀로 우두커니 낙동강을 굽어보고 있었다.

기암절벽과 강물,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진 모습이 절경이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강바닥 준설이 시작될 무렵,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경천대의 비경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기자가 찾은 경천대는 '낙동강 제1경'이란 명성에 걸맞은 자태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신현봉 경천대 관리사무소장은 "침수피해가 줄어, 경치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현봉 소장에 따르면 경천대를 찾는 사람은 평일 3백명, 주말에는 5백~6백명을 웃돈다. 인근 학생들의 견학과 소풍장소로 쓰여 학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된 후에는 경천대 남쪽에 있는 상주보와 낙단보를 둘러보고 경천대를 거쳐가는 관광객들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90퍼센트 공정 상주보·낙단보 주변도 절경

경천대에서 차로 10분가량 떨어진 상주보로 이동했다. 상주보는 낙동강에 들어서는 8개 보 가운데 가장 상류에 위치해 있다. 세 송



이동훈 기자

'낙동강 제1경'으로 불리는 경북 상주 경천대에서 내려다본 낙동강. 김용묵 상주시 새마을관광과장은 "강 준설로 강변 농경지가 홍수로부터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낙동강의 8개 보



이 장미를 연상케 하는 상주보 주변에서는 8개 건설사가 15.1킬로미터 구간의 하상퇴적토를 걷어내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도남동 상주보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낙동리 낙단보에서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낙단보를 기준으로 3.1킬로미터 구간에 쌓여 있는 모래를 걷어내느라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바쁘게 오갔다. 임용래 상주시 공보계장은 "강바닥에 쌓인 모래로 여름철 집중호우 때면 낙동강이 범람해 1년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다"고 털어 놓았다.

노영섭 상주시 재난관리팀 하천계장은 "강바닥 모래를 퍼내는 하천준설은 거의 끝났다"며 "상주보와 낙단보는 각각 90퍼센트와 91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낙단보는 1백44미터의 고정보와 1백41미터의 가동보로 이뤄졌다. 인근에 있는 '관수루(觀水樓)'란 정자를 닮은 단아한 모습이 특징이다. 낙단보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진씨는 "낙단보 공사를 시작하면서 들렀다 가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웃었다.

낙동강 역류 없어지자 농민들도 한시름 덜어

상주보와 낙단보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상주 농민들도 한시름을 덜었다. 상주시 전체 인구 10만5천명 중 농가인구는 4만3천여 명에 달한다. 농업인구로는 경북 1위다. 주 생산품인 쌀과 배, 오이, 한우는 경북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한다. 높은 농업의존율로 상주시는 낙동강 정비의 필요성을 다른 지자체보다 더 절실히 느꼈다.

상주시 낙동면 장곡리에서 벼농사를 짓는 허대철 장곡리 이장은 "4대강 공사 전에는 매년 여름이면 낙동강물이 넘어와 하류 쪽 배수장서 배수펌프를 물이 빠질 때까지 가동했다"며 "4대강살리기 후에는 물이 1미터로 머물러 역류를 하지 않고 빠져나갈 공간이 생겨 침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며 기뻐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주관한 한국농어촌공사도 상주보와 낙단보에 거는 기대가 크다. 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최도식 과장은 "보를 완공하는 10월 말쯤 담수를 한 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이동훈 기자

성백영 상주시장

"천혜의 비경 살려 낙동강 랜드마크로 조성"


상주시

성백영(60) 상주시장은 "올해도 7~8월 두 차례에 걸쳐 많은 비가 내렸으나 소규모 재산 피해만 있었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며 "장마철 많은 비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던 주민들도 더 이상의 침수가 발생되지 않아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상주 관내 낙동강살리기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보 99퍼센트, 하도준설 99퍼센트, 농경지 리모델링 100퍼센트 등 종합진도 90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공사 등 부대시설도 오는 11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시가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적극적인 특별한 까닭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만 해도 지금의 도청에 해당하는 경상감영이 상주에 있었습니다. 문경새재 아래 제일 큰 고을이 상주였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철도부설에 반대해 쇠락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당시 잘못된 결정으로 잃어버린 상주의 지위를 다시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업초기 환경단체의 반발도 많았습니다.

"사업초기 4대강살리기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함에 따라 생태계와 환경파괴, 농경지 침수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잦은 비에도 홍수피해가 줄고, 강 주변의 생태공원, 국립생물자원관과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 등 환경도 지키며 강을 문화·관광자원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낙동강살리기가 완료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상주보, 낙단보의 6천3백만 톤에 달하는 풍부한 담수량으로 생활용수와 공업 및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해결됩니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 등이 예방되고, 수변공간과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으로 시민들이 문화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상주보와 경천대 일대를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요.

"상주보와 경천대 주변은 낙동강 1천3백 리 중 가장 빼어난 비경을 자랑합니다. 상주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인 점을 감안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경천섬과 비봉산,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낙동강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살리기와 연계해 상주를 '자전거 수도'로 키운다는데요.

상주는 일제강점기 때인 1925년 지금의 포뮬러원(F1)에 비견되는 '조선 팔도 자전거 대회'를 개최한 곳입니다. 전체 자전거 보유대수는 8만5천여 대로, 가구당 보유수도 2.5대에 달합니다. 지난해 자전거박물관을 경천대 부근으로 이전개관하고 낙동강변을 잇는 34킬로미터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자전거관광객도 몰리고 있습니다.

드넓은 강물이 활주로로… 하늘길 연다

2014년까지 고아읍에 조성… 미국·캐나다처럼 관광·출장용으로 이용

오는 2014년이면 서울과 구미를 오가는 수상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경북 구미시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수상비행장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강물과 호수를 활주로로 사용하는 수상비행기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흔한 교통수단이다. 과거 나룻배만 오가던 낙동강에 새로운 하늘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동훈 기자

경북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에는 오는 2014년까지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수상비행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래 사진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운용 중인 수상비행기와 계류장.

2014년 어느날 구미의 한 전자업체 공장장으로 일하는 A씨는 서울 본사의 급한 호출을 받았다. A씨는 공장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낙동강 수상비행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프로펠러의 굉음과 함께 수상비행기가 낙동강을 박차고 올랐다. 40분 만에 너른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상비행기 취항 후 A씨는 출장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A씨처럼 오는 2014년 구미와 인근 지역 사람들은 수상비행기로 전국 각지를 누비게 된다. 낙동강에서 떠오른 수상비행기는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영산강을 끼고 있는 나주로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나룻배와 조운선만 오가던 낙동강 위에 하늘길이 새로 열리는 셈이다.

구미시는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낙동강 수상비행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보와 구미대교 사이 고아읍 낙동강변을 수상활주로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성칠 구미시 홍보담당관은 “지난 8월 11일 구미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상비행장 건립 방안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도심서 10분… 서울까지 1시간이면 충분

지난 8월 31일 찾은 구미시 고아읍 수상비행장 조성 예정지에서는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언뜻 봐도 탁 트인 강물 위로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수상비행기가 계류장으로 접근하기 위해 선회하는 데도 충분한 회전반경을 갖추고 있었다.

수상비행장은 말 그대로 물 위에 조성한 비행장이다. 프로펠러 동력의 경비행기는 바퀴에 해당하는 플로트를 사용해 수면 위에서

자유자재로 뜨고 내릴 수 있다. 수상비행 전문교육기관인 드림항공 윤종준 대표는 "수상비행장 만드는 데 드는 돈은 지상비행장에 비해 세발의 피"라고 단언했다.

구미시는 올 초 드림항공에 의뢰해 수상비행장 조성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았다. 당초 구미시가 눈여겨 볼 곳은 구미공단 인근. 인구 40만명의 구미에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 2천여 개의 공장이 있다. 하지만 공단 위를 지나는 고압전선 때문에 구미시는 도심과 10분 거리의 고아읍으로 예정지를 변경했다.

구미시 건설과 이상용씨는 "10월 말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돼 보에 강물이 차게 되면 수상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6미터 내외의 수심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윤종준 대표는 "올해 초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수상비행장 조성 예정지를 둘러봤다"며 "당시 수상비행장 설치에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수상비행장은 편의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아 선진국에선 보편화돼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관광용과 출퇴근용 수상비행기를 운용 중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미국 70개, 영국 12개, 캐나다에는 무려 3백22개의 수상비행장이 있다. 연간 6만9천 편, 하루 1백90편의 수상비행기가 수시로 뜨고 내린다.

정부도 수상비행장 관련법령 등 정비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윤종준 대표는 "수상비행 사업자 자격을 대형 항공사와 같이 묶어둬 수상비행장 운영이 국내에서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관련 법 정비로 전국 10여 개 지자체에서 수상비행장 건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상비행기를 띄우면 서울과 구미를 시속 3백킬로미터로 1시간 내에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수상비행장 시대를 대비해 지난해 6월 착륙대의 길이 등 수상비행장의 규격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착륙대 길이와 선회수역 지름이 각각 1천5백미터와 1백20미터 이상이면 수상비행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상비행장 규격을 완화한 것이 개정의 골자다. 또 수상비행장 설치에 필요한 정박장, 경사대, 탑승로, 부표, 통신시설 등 필수시설을 비롯해 주기장, 격납고 등의 종류와 설치제원도 조만간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공레포츠 동호인은 12만7천명에 달한다. 각종 비행장치도 6백26대에 이른다. 국토해양부 공항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서지역과 호수 등에서 수상비행장 설치허가가 가능하게 돼 도서벽지의 교통난 해소와 항공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G 글·이동훈 기자

남유진 구미시장
"고질적인 홍수·가뭄 예방… 명품 수변도시 될 것"


구미시

"수상비행장과 하천연구공원이 건립되면 구미는 대표적인 녹색 수변도시가 될 것입니다." 남유진(58)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녹색중심도시' 구미를 재창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낙동강살리기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낙동강 중심의 세계적인 명품 수변도시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지역의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은 오태동에서 옥성면 구봉리 사이 약 39킬로미터에 달한다. 낙동강 전체 길이 510킬로미터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이다. 남 시장은 "구미 구간의 전체 공정은 90퍼센트 수준으로 준설토 공정률은 99퍼센트, 구미보 공정은 98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 준설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난 8월 16일까지 4대강 준설작업 후 하천 단면형상을 측량해 분석한 결과, 7월 말까지 전체 준설량의 26퍼센트인 1.38억세제곱미터를 준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백 년 빈도의 홍수량에 비해 최대 1.7미터까지 홍수위가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구미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어떠한가요.
구미는 낙동강이 도심의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낙동강 준설로 통수단면을 확대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해 고질적 홍수와 가뭄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수상레포츠 시설과 수변 생태공간 등의 조성으로 다양한 여가와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대다수 주민은 조속히 사업이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수상비행장 조성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강 이남에서 강이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도시는 구미가 유일합니다. 이 같은 지리적 장점을 이용해 서울 청계천, 호주의 골드코스트 같은 명품 수변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권역별 10개 지구에 구미가 선정됨에 따라 향후 선도 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상비행장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수상비행장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신속한 중장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응급환자 수송과 기업체 임직원들의 비즈니스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상비행장 조성예정지가 도심과 가까운 생태하천과 연계돼 있어 요트, 수상스키 등 시민들의 다양한 레포츠 활동도 가능합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또 다른 낙동강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구미에 하천연구공원(가칭)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하천의 통합적 관리와 더불어 물산업과 수자원 기초공학 육성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축구장과 여가시설을 갖춘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는 '오토 캠프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강해진 백마강이 '백제 왕도' 살린다

준설로 수심 5~7미터로 깊어져… 관광자원으로 큰 역할 기대

백제의 왕도였던 부여 앞을 흐르는 백마강은 1천3백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토사퇴적·수질오염·생태계 파괴로 신음하고 있었다. 때문에 부여 주민들은 금강살리기 사업을 적극 지지해 왔다. 공정이 90퍼센트 이상 진행된 지금, 부여군은 다시 깊어진 백마강과 친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수상관광 시대를 연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배진영 기자



백제보 공사 현장. 백제보는 계백위환(階伯衛還)을 모티브로 형상화했으며, 주변에는 자전거길과 산책로, 수상스포츠 등 레저시설이 들어선다.

충남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왕도(王都)다. 하지만 현재 인구 7만6천명 남짓의 평범한 농촌도시일 뿐이다. 역대 왕조의 도읍 가운데 아직도 시(市)로 승격하지 못하고 군(郡)에 머물고 있는 곳은 태봉의 도읍이었던 철원을 제외하면 부여가 유일하다.

그래도 백제의 옛 영화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부여를 찾는 관광객이 연평균 5백여만명은 된다. 하지만 정림사지·부여박물관·부소산성·궁남지·능산리고분군·낙화암 등 부여 곳곳에 있는 문화유적지들을 둘러보는 데는 한나절이면 충분하다.

부여군 앞을 흐르는 금강 구간인 백마강(白馬江)에서도 과거의 영화를 잃은 부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백제 말기 중국이나 일본에서 바다를 건너온 배가 구드래나루까지 들어오던 백마강은 1천3백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수심이 깊어야 1~2미터, 얕은 곳은 바지를 걷고 건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강이 되어 버렸다.

금강살리기 사업, 주민 72퍼센트가 찬성

여기에는 1980년 충남과 전북에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만든 금강하굿둑의 영향도 컸다. 금강하굿둑으로 인해 토사의 퇴적이 심해졌다. 백마강 구간에 이르러 유속이 느려지면서 상류에서 내려운 축산·생활 하수 때문에 물이 썩는 생태계 파괴 현상도 벌어졌다.

김용태 부여군개발위원장은 아가미와 꼬리 주변이 썩어 들어간 강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몸뚱이 일부가 썩은 물고기들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물속을 헤엄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성 부여

금강의 3개 보



군청 하천계 주무관은 "금강하굿둑이 생긴 이후 부여의 특산이던 '우어'도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때문에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부여군민의 기대는 매우 높다. 작년 11월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全數) 여론조사에서도 주민의 72퍼센트가 금강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 초기 외지에서 몰려온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을 막아낸 것도 주민들이었다. 부여군개발위원회는 1만2천여 명으로부터 금강살리기 사업 추진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4대강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하는 반대론자들에게 '금강은 이미 죽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실상이나 제대로 알고 반대하라'고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말했다.

금강하굿둑 수문 열어 바닷길 열리길 희망

현재 금강살리기 사업 구간의 작업 진척률은 90퍼센트 수준이다. 부여군 관내 구간의 경우 준설작업은 끝났다. 덕분에 백마강 수심이 5~7미터로 깊어졌다. 백제보·금강역사문화관·전망대 등 주요 시설물은 95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 예산 2조2천억원 가운데 9천억원이 부여군 관내 사업에 투입됐는데, 이 중 3천억원이 백제보 건설에 들어갔다. 1천8백만 톤의 담수능력을 가진 백제보는 가뭄과 물부족을 해결하고 홍수시 유량조절에 유리한 가동보로 퇴적토사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보 주변에는 소수력발전소, 자전거길과 산책로, 수상스포츠 및 주민체육 공간이 만들어진다. 부여군은 이를 계기로 백마강 수상관광 시대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다. 김용태 위원장은 "금강하굿둑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준설과 친수공간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금강살리기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질오염·토사퇴적·생태계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강하굿둑의 수문을 열어 바닷물이 유통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

글·배진영 기자

이용우 부여군수

"황포돛배 운행 확대 등 수상레저 시대 연다"


김용학

"부여권역 금강살리기 사업은 백제의 왕도였던 부여를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1백년 만에 찾아온 대형 국책사업인 금강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백마강 수상관광 시대를 열어 부여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부여군은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선 용수확보, 홍수조절 용량 증대,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등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강뱃길 복원, 수변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레저 공간 조성 등을 통해 백제문화의 젖줄이던 '문화의 강' 금강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폭우 때, 금강살리기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부여의 연평균 강우량이 1천4백밀리미터 정도인데 8월까지 2천밀리미터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7~8월에는 작년보다 1백70퍼센트가 많은 5백82밀리미터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강폭을 넓히고 준설을 통하여 통수단면을 키운 결과 많은 강우량에도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는 배수장 노후화, 배수로 협소 등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류 및 지천 정비 사업과 연계해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를 '백마강 수상관광시대 원년'으로 선포했는데,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새로운 나루터 10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기존 황포돛배 운행 구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강역사문화관, 농촌관광단지, 수상정원·인공섬 조성사업 등과 연계한 친환경 복합 휴양 및 레저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 패러글라이더장 승마장 등 이색 레저스포츠장, 수상공연장, 오토 캠핑장, 친환경적 골프장 등을 조성 여가와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야외 레저 공간을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수상관광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수상레포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여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인 수상관광을 선도해, 역사문화 유산을 보기 위해 부여를 찾던 기존 관광객들과는 전혀 다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4대강사업을 통해 일단 준설이나 친수공간 정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일단락됐습니다.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류·지천의 정비, 친수공간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망 및 편의시설 설치,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연합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황포돛배. 지난 8월 31일 영산강살리기사업 6공구인 죽산보에서 통선문 시연행사가 열리고 있다.

千年古都 목사골 다시 흐른다

내륙 유일의 등대 등 포구문화 보존… 일본·중국 관광객 유치 부푼 꿈

나주시민들은 설레고 있었다. 작은 한양이라 불릴 정도로 번성했던 과거의 영화가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주를 살찌웠던 '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옛모습을 되찾고 있다. 시민들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개발이 아니라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강이 강다웠던, 본연의 영산강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였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과거 호남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이후로 '목'이 소재했던 행정의 중심지다. '천년고도'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도시의 내력은 다시 천 년을 거슬러 마한에 이른다. 도시 여기저기 마한의 고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고대의 신비를 접할 수 있다. 나주시가 수천 년이나 풍요로울 수 있었던 것은 영산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영산강은 호남의 구석구석에 물자를 실어나르고 사람들을 이어줬다. 나주는 이 영산강의 중심도시였다.

하지만 영산강은 최근 몇십 년 동안 중병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였다. 1981년 영산강 하굿둑이 생기면서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혔다. 상류 곳곳에는 댐이 생겼다. 강은 흐르지 않고 썩어갔다.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5급수까지 전락했다. 비가 많이 내린다 싶으면 어김없이 강변 마을들을 집어삼켰다. 영산강살리기는 이 지역 사람들의 소망이 됐다. 그리고 올 여름, 나주 시민들은 영산강이 살아날 것이란 희망의 근거를 확인했다.

죽산보에 통선문… 승촌보~죽산보 뱃길 열려

"이 집 천장에 냉장고가 둥둥 떠다닌 적도 있습니다. 큰 비만 왔다 하면 넘쳤죠. 올해는 비가 제법 왔는데도 끄떡없었어요. 최소한 지긋지긋한 침수피해에서 해방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영산강의 2개 보



영산강 구진포에서 장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석씨는 여름철 홍수 피해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영산강살리기는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이 깊어져 수량이 풍부해지면 구진포 사람들의 생계를 이어주던 어업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김씨는 기대했다.

"구진포는 전국 최대의 장어 산지였어요. 그런데 영산강 하굿둑이 생기고 나서는 어획량이 뚝 떨어졌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어업과 농업을 병행했는데 그 후로는 대부분 어업을 포기했어요. 장비 값도 안 나오니까요.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이 많아지면 어족 자원도 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영산강은 원래 배가 다니던 강이었다. 호남의 젖줄이라 불린 것도 배들이 쉼 없이 오가며 문물을 날랐기 때문이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영산강에 다시 배가 다닐 수 있게 된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죽산보는 이를 위해 특별하게 설계됐다.

죽산보는 4대 강의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배가 다닐 수 있는 통선문이 있다. 평소에는 막아두었다가 배가 오면 여는 구조로 1백톤 정도의 배가 통과할 수 있는 규모다. 나주시는 이곳에 고대의 나주선을 복원한 황포돛배를 관광레저용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이 배는 승촌보에서 죽산보까지 운항한다.

나주 명물 홍어·장어·국밥 체험공간도 꾸며

관광산업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나주시에 준 또 다른 기회다. 영산강 주변에는 고대에서 근대까지 역사적 기억을 머금고 있는 공간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나주시는 특히 포구를 관광자원화하는 '영산강 상품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포구인 영산포엔 '식도락 거리'가 조성된다. 나주의 명물인 홍어, 장어, 국밥을 중심으로 한 남도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산강 하굿둑과 함께 활기를 잃은 영산포 경제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자전거길, 공원, 전망대 등 수변생태공간도 조성된다. 자전거길은 담양에서 영산강하굿둑으로 이어지는 2백20킬로미터 규모로 영산강을 따라 담양과 나주의 주요 역사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다. 승촌보와 죽산보 주변에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G 글·변형주 기자

임성훈 나주시장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나주가 될 겁니다"


나주시

"4대강살리기 사업 가운데 영산강은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새로 태어나고 있는 영산강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수질이 좋아졌다. 홍수 걱정도 크게 덜었다. 유량이 풍부해져 강물이 강답게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엔 감회마저 새롭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임 시장은 기대했다. 특히 관광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산강이 건강하게 흐를 때 나주시 경제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영산강이 되살아나면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것입니다. 나주시는 영산강에 접한 8개 시·군 가운데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사업을 벌일 수 있는 최적의 도시입니다. 수천 년간 번영을 누린 나주의 전통문화가 영산강을 통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영산강이 건강하게 흐르는 것 자체가 행복을 줍니다. 여기에 레저활동과 문화생활을 위한 미래지향적 친수공간이 보태져 삶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길, 산책로, 수변공원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주시는 영산강의 친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근접한 시설은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외곽의 시설은 관광산업과 연계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다. 과거 영산강의 수질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일 것입니다. 먼저 건강한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에 조성한 시설물들이 방치되지 않고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주시에 조성되고 있는 광주전남혁신도시와 영산강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15개 공공기관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 나주의 산업은 농업에서 전력, IT 등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도시의 중심도 이동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의 중심인 원도심이 공존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산강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영산포 인근은 뱃길복원의 선창으로서 상업 중심의 경제로, 읍성권은 전통문화를 활용한 역사체험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통선문 만들어 '녹색의 땅' 뱃길 열어라"

서남해의 풍부한 수산물과 영산강변 농산물이 만나는 물류중심 되살려야

영산강은 남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초들의 웃음과 애환을 고스란히 안고 흐르는 호남의 젖줄이다. 그 유역에서는 찬란한 농경문화가 꽃피었다. 서남해안으로 열린 물길을 통해 수산물을 실어 날랐고, 일본과 중국과 문화를 주고받았다. 이처럼 물은 강에서 바다로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대원칙이다.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은 2004년 전라남도지사 공약사업이자 4백만 전남·광주 시·도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단순히 영산강에 배를 띄우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바다와 소통했던 옛 영산강의 풍요로움을 다시 일궈내라는 열망이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바다를 향해 일찍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나선 나라와 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섰다. 과거 식민지 개척시대 때 영국은 미국, 캐나다를 개척해 영어권 국가로 만들었고, 스페인은 남미제국을,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그들의 신세계로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신라 때 해상왕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우고 바다를 경영하면서 한·중·일 해상 무역권을 장악했었고, 중국도 명나라 때 적극적인 해양개척정책의 결과로 정화선단이 세계무역을 지배했다. 반대로 해양경영에 수동적이면 그 나라와 민족은 쇠퇴를 면치 못한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1년 정부가 식량 증산과 농업용수 확보를 이유로 하굿둑을 축조하면서 바다를 향한 영산강 물길이 막혔다. 숭어, 장어, 낙지를 비롯해 많은 수산물이 없어졌고, 영산강의 낭만으로 표현되던 황포돛배의 모습 역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영암방조제 통선문 신설 방안



더욱이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했던 영산강 하굿둑이 축조된 직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불과 몇 년 후를 보지 못해 많은 화를 불러왔다. 악화된 영산강의 수질은 친환경농업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강변의 수많은 관광자원은 빛바랜 채로 방치되고 말았다.

전라남도가 영암호 통선문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영산강 주변에 사장되어 있는 전남의 수많은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서 전남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과거 뱃길이 활발했던 목포와 영산포 사이에는 40여 개의 크고 작은 나루터가 5~10리마다 있었다. 그 나루터에는 흑산도 홍어를 비롯한 서남해의 수산물을 가득 실은 수많은 배가 떼를 지어 드나들었고 사람과 사람들로 흥청거렸다.

통선문 없는 영산강살리기는 절반의 성공일 뿐

이런 수산물과 영산강변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산물은 한국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를 탄생시켰다. 영산포 홍어, 구진포 장어, 웅어, 토하젓, 나주곰탕, 세발낙지, 짚불고기 등이 그것이다. 이런 영산강의 옛 영화를 다시 한 번 재현하기 위해 통선문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영암호 통선문은 전남의 운명을 바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F1 국제자동차 경주장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 매년 1백억 달러가 넘는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를 메우는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영산강 나루에서 출발한 요트와 유람선, 황포돛배가 영암호 통선문을 통해 흑산도로, 홍도로 그리고 보길도로, 엑스포가 열리는 여수로 가는 그런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라. 가는 뱃길에 보이는 쪽빛 바다와 크고 작은 보석 같은 섬들, 길고 아름다운 오밀조밀한 해안선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영암호 통선문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열망으로 시작된 영산강 뱃길복원사업의 성과는 단지 수질을 정화하고 물길을 바로잡는 절반의 성공에 머물 수밖에 없다. G

글 · 송재준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찰칵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문화가 흐르는 강이 됩니다.
강따라 사람따라
공 모 내 용 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수변지역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사진
제 출 기 간 2011. 9. 15 (목) ~ 10. 31 (월) 18 : 00
공 모 분 야 일반사진, 창작사진
제 출 방 법 공모전 공식 웹사이트 (www.cultureriver.com) 참고
발 표 2011. 11. 25 (금)
시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 총상금 4,000만원
주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cultureriver.com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시찰을 위해 남한강을 찾은 주한 외국대사와 외교관 일행이 지난 9월 2일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이포보 인근 강변에서 자전거 타기를 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 분명히 이해했다"

16개국 주한 외국대사들, 여주 강천보·이포보 시찰… 자전거 타기 체험도

주한 외국대사들이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을 찾았다. 우리와 같은 물부족 국가의 대사도 있었지만 물관리는 지구촌 전체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들 대사의 4대강살리기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4대강살리기가 대운하가 아니란 사실도 이해하고, 올 여름 장마기간 중 홍수를 막아 냈다는 것도 알게 된 주한 외국대사들의 4대강 시찰 현장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다."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주한 외국대사들이 지난 9월 2일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여주군의 강천보와 이포보를 찾아 4대강살리기 현장을 시찰했다. 이들은 4대강살리기를 통해 한국이 쌓은 기술과 노하우가 자국의 하천정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4대강 시찰에는 벨기에, 폴란드,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세르비아,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싱가포르, 오만, 파나마 등 10개국 대사와 코트디부아르의 대리대사 등 모두 16개국 19명이 시찰에 참가했다.

자국의 중요 행사와 4대강 방문 일정이 겹쳤던 피터 탄 하이 추안 주한 싱가포르 대사는 "4대강 현장을 꼭 직접 보고 싶다"며 일부러 시간을 내 오전 일정에만 참가했다. 싱가포르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분류에 따라 한국과 같은 물부족 국가이기도 하다.

이날 시찰에 참석한 국가 중 물부족 국가는 싱가포르를 포함해 4개국이나 됐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 앞에서 함께 버스를 타고 4대강살리기 현장을 향해 출발한 다른 나라 대사들도 "홍수로 인한 피해예방은 세계적인 관심사"라며 "한국이 고민해서 내놓은 해법을 참고하러 왔다"고 참관 이유를 밝혔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심명필 본부장이 동행한 이날 주한 외교사절의 4대강 시찰은 강천보 현장에서 진행된 4대강살리기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시작으로 강천보 인근의 4대강살리기 홍보관 시찰, 심 본부장과의 오찬 간담회, 이포보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

강천보에서 영어 브리핑을 들은 각국 대사들은 이어진 심 본부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강바닥에서 채취한 흙과 모래가 주변 저지대를 매립하기에 충분한가", "짧은 공사일정에 환경평가는 제대로 했는가" 등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심 본부장의 답변을 메모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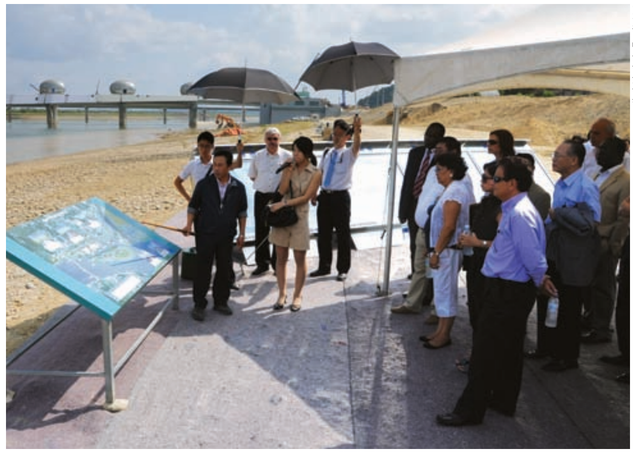
4대강살리기가 대운하 아니란 사실도 알게 돼

질의응답 시간에 드러난 상당수 주한 외교관들의 4대강살리기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 대운하'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4대강살리기를 이들에게 바로 알리고자 마련된 이날 시찰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4대강 시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심 본부장은 오찬 때까지만 해도 외국대사들로부터 "4대강살리기가 한국의 4대강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에 대해 심 본부장은 "4대강살리기는 홍수예방과 생태환경 보존 등 다목적사업으로, 4개의 강을 연결하는 대운하가 아니다"라는 상세한 설명을 했다.

주한 외국대사들이 4대강살리기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한 것은 첨단 3D 기술이 적용된 강천보 홍보관과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4대강살리기 공사 현장, 그리고 말끔하게 단장된 강천보와 이포보 인근 생태공원까지 둘러보고 나서부터였다. 시찰 일행이 때론 자욱이 먼지 일으키는 공사차량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주최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충실히 따라 주었다.

특히 여주읍 연양지구에서 자전거 도로를 본 대사들은 "서울까지 바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라는 말에 탄성을 내질렀다. 발레르 세바스티엥 테에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리대사는 "길이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을 하고는 4대강살리기 관계자들로부터 "4대강 주변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지선을 제외한 종주로만 1백50킬로미터"란 답변을 듣고는 매우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주한 외국대사와 외교관 일행이 이포보 앞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또한 이곳 연양지구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만 되면 물에 잠기던 곳인데, 올 여름 집중호우 때는 멀쩡했다는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이포보를 찾아 4대강살리기로 인해 물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주변 환경오염 시설이 철거된 현장을 기록한 사진들을 본 대사들은 "4대강살리기가 어떤 사업인지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됐다"는 소감을 말했다.

"우리 대통령 방한 일정에 4대강 시찰 넣고 싶다"

이포보 인근 남한강변에 마련된 자전거 타기 체험은 이날 시찰의 하이라이트였다. 남편인 하이메 알베르또 까발 싼끌라멘떼 주한 콜롬비아대사를 대신해 시찰에 참가한 클라우디아 칼레로 대사 부인은 드레스 차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자전거에 올라 강변을 달렸다. 푸른 생태숲 사이를 가르는 이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주한 외국대사들은 시찰을 마친 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하천을 정비해 홍수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정식으로 접촉하고 싶다"는 의사를 잇달아 밝혔다. 특히 칼레로 콜롬비아 대사 부인은 "이달 중에 있는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 일정에 4대강살리기 현장 시찰을 꼭 넣고 싶다. 콜롬비아 대통령도 하천정비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의 김승겸 해외홍보전문관은 "이날 행사는 4대강살리기의 내용, 경과, 시행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각국 대사와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G 글 · 남창희 객원기자

"든든한 강과 더불어 지역경제 힘나겠죠"

그동안 지방 건설업에 숨통… 앞으론 "관광객 늘어 상권 확장" 한목소리

4대강살리기 사업의 완공이 다가오면서 지역 경제인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공사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효과는 상당했다. 지역 건설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완공 후에는 관광, 레저, 음식업 등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고용과 소득이 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악의 건설경기에도 부도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그나마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지방 건설업의 존립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경북 지역경제와 상권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최영우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의 답변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이미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삼양산업 대표이사로 경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영우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경상북도 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상북도 상공회의소(상의) 협의회장직도 수행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입니다. 경북 지역 상공인들도 '언젠가는 해야 하는 사업'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이 끝난 후 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믿습니다."

최 회장이 일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숨기지 않는 까닭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4대강 긍정효과 체험하면 반대자들도 돌아설 것"

물론 지역 상공인의 한 명으로서 최 회장이 4대강살리기 사업을 바라보며 아쉬웠던 부분도 많다.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다. 최 회장은 "건설업체 선정의 경우 정부에서도 나름 지방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래도 지역업체들의 참여 폭이 좁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최 회장은 오는 10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수질관리와 강변 주위 환경개선, 그리고 건전한 여가문화와 레저시설 등의 구축이 이뤄졌다"며 "4대강살리기로 국민생활 가까이 있으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완공을 앞둔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 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왼쪽부터 최영우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장, 최창원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신현익 이천상공회의소 회장.

"앞으로는 샛강의 복원과 정비에 각별한 관심을"

호남의 상공인들도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발원한 영산강은 1백36킬로미터를 달려 목포에 이르러 서해와 몸을 합친다.

목포에 영산강하굿둑이 건설되기 전 목포를 통해 어선과 여객선·화물선이 드나들었고, 밀물 때에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풍요로운 갯벌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하굿둑이 생기면서 갯벌도 사라졌고 배의 통행도 불가능해졌으며 갈수록 오염됐다.

이에 따라 목포를 비롯한 호남의 상공인들은 영산강을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영산강살리기 사업 이전에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에는 목포상공회의소가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지지한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로 기대감이 크다.

최창원 목포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완성되면 관광산업과 농업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최근 죽산보 통선문을 통해 황포돛배가 운항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뱃길이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경제인들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강원도 화천의 수상가교 자전거길.

복원되면 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환경단체들이 영암호 통선문 설치를 반대하는데 강의 정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선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 도시개발사업(일명 J프로젝트)과 연계돼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리란 희망이다.

최 사무처장은 "남도의 자랑인 먹거리와 영산강의 수려한 경관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해 숙박업과 요식업 등이 활기를 띠고 고용과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며 "관광산업이 발전하면 침체된 전체 지역경제의 회복에도 적잖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관광자원과 시너지 효과도

영산강살리기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며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 사무처장은 "우려하는 환경문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샛강의 복원과 정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한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 지역 상공인들의 꿈도 부풀고 있다. 여주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등을 비롯해 총 76점의 국보 및 천연기념물을 보유하고 있다. 해여림식물원이나 목아박물관, 여성생활사박물관, 현대도자미술관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도자기·쌀 문화 축제 등 관련 산업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여기에 남한강살리기 사업으로 생태, 휴양, 레저 공간까지 조성된다면 관광객 증가는 당연한 결과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양평, 여주, 이천 지역 상공회를 대표하는 이천상공회의소의 신현익 회장은 "남한강살리기 사업이 한동안 침체돼 있던 여주 지역에 활기를 실어 주는 계기가 됐다"며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선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고 자전거도로를 통해 수도권에서 접근이 쉬워지면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여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큰 발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자기, 쌀밥, 온천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남한강변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휴양 시설이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웰빙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G 글·변형주 기자

홍수·가뭄에 신음하던 그때 4대강

언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

가뭄이 들 때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바닥을 보이던 강. 오죽 속이 타면 기우제를 다 지냈으랴. 이러던 강이 정작 비만 오면 홍수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했다. 생명의 물줄기이기도 하면서 때론 이렇게 심술궂어지는 강의 변덕에 농부의 마음은 가뭄에 타들어 가고 홍수에 멍들어야 했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강이 달라졌다. 퇴적토를 걷어내 물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홍수 피해가 줄었고, 16개 보(洑)로 커다란 물그릇을 만들어 가뭄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 사진으로 돌아보는 장마와 홍수 걱정, 그때 그 시절은 정말 이러했다.

한강

조선DB



1965년 7월15일 오후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1965년 7월 16일 한강은 위험수위 10미터80센티를 넘어섰다. 사진은 물에 잠긴 한강 인도교와 당시의 여의도공항 부근.

금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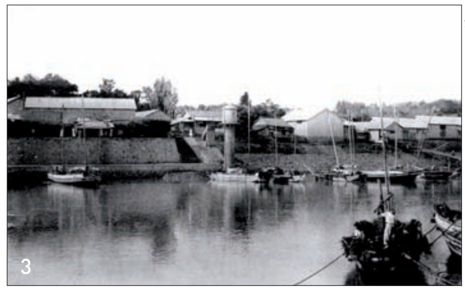


조선DB

영산강



조선DB



조선DB

1 2002년 8월 금강 홍수로 물에 잠긴 충남 부여군 세도면의 모습. 동네주민들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모습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2** 오염이 심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영산강의 퇴적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준설을 하기 전 모습이다. **3** 영산강 수량이 줄기 전 배가 드나들던 1930년대 전남 나주 영산포의 모습.

낙동강

조선DB





조선DB

4 2009년 1월 오랜 가뭄으로 거북등 같이 바닥이 갈라진 낙동강 상류 안동댐의 모습. 낙동강은 오랫동안 상류 지역의 가뭄,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입어왔다. **5**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기우제를 지내는 이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강물이 말라 바닥을 보이는 1977년 8월의 강변 풍경이다.

"4대강 친수공간은 산림자원의 새 보고(寶庫)"

경관 뛰어난 38곳에 '희망의 숲' 만들어 명품정원 조성… 홍수 예방도

산림청은 올해 봄철 나무심기 기간 동안 전국 4대강 주변에 경관이 뛰어난 38곳을 선정해 '희망의 숲'을 조성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조성된 '희망의 숲' 친수공간과 친환경 생태습지 등 녹지벨트는 자전거길과 함께 새로운 여가활동의 장으로 요긴하게 활용될 것이다. 산림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봄철 심은 강변의 나무를 돌보는 나무입양(入養)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는 급속한 기후변화 대응이다. 지구촌 기상 상태를 보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곳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후변화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강원도에 시간당 1백밀리미터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아까운 생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말 없는 경고같이 느껴진다.

가장 빠른 시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한 한국

우리나라 연(年)평균 강수량은 1천2백45밀리미터로 세계 평균의 1.4배나 되지만 홍수기인 6~9월에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물 관리가 어렵다. 이 때문에 강우로 인한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용수량에 비해 물 확보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조선DB

지난 4월 5일 제66회 식목일을 맞아 경기도 여주군 당남지구 '희망의 숲' 조성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예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가경영의 기본이라고 했다. 산과 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치세(治世)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6·25전쟁 이후 정부가 가장 심혈을 쏟은 국책사업은 바로 치산치수다. 산을 가꾸고 물을 다스리는 것이 국가 재건의 전제조건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저변에는 치산치수라는 힘이 자리 잡고 있다.

흔히 숲은 우리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숲에서 시작해 숲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숲이 망가지면 인간이 문화·정서·경제적으로 황폐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우리 국토는 극도로 황폐화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70년대에 온 국민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산으로 가 나무를 심었다.

치산녹화는 결코 쉽게 성공하지 않았다. 아이를 등에 업고 나무를 심은 어머니와 벼랑에 밧줄로 몸을 매달고 굳은살이 박이도록 곡괭이질을 한 아버지의 땀과 정성으로 이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우리를 가장 빠른 시간에 녹화에 성공한 국가로 입을 모아 칭송하는 것이다.

청년기 접어든 산림은 이제 '숲가꾸기' 단계

현재 우리 산림의 모습은 광복 이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변했다. 입목(立木) 축적은 6세제곱미터에서 109세제곱미터로 무려 18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만큼 숲이 울창해지고 자원으로서의 값어치가 높아졌다. 이러한 숲은 거저 얻어지지 않았고 끊임없는 사람의 정성과 돌봄으로 이룩된 것이다.


조선DB

신라 말기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경남 함양 상림(上林)은 지난 1천 년 동안 함양을 수해로부터 지켜줬고 지금도 지역주민의 쉼터로, 정원으로, 문화재로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다.

산림녹화기에 국토에 심은 나무가 1백억 그루 이상이다. 이 나무들은 이제 한창 가꿔주어야 할 청년기에 접어들어 대대적인 숲가꾸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1998년부터 매년 약 25만헥타르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전국에서 물의 원천인 4대강 주변은 물론 산간오지 지역에서까지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숲가꾸기를 하면 숲의 밀도가 적절하게 조절돼 하층까지 햇빛이 도달한다. 숲의 하층에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 있게 되고 뿌리가 발달한 숲은 각종 산림재해를 막아준다. 산림청은 금년 봄철 나무심기 기간 동안 전국 4대강 주변에 경관이 뛰어난 38곳을 선정해 '희망의 숲'을 조성했다. '희망의 숲'에서는 가족, 연인, 친구, 기업 등의 이름으로 국민 누구나 직접 나무를 강변에 심을 수 있도록 해 아름다운 내 고장 강을 가꿀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했다.

아라뱃길 따라 나무입양 사업 벌여

아이와 함께 탄생기념목을 심고, 연인끼리 사랑의 나무를 심고, 친구와 우정의 나무를 심고, 가족과 화목의 나무를 심었다. 기업은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어 아름다운 명품 정원으로 꾸미고자 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조성된 '희망의 숲' 친수공간은 강을 중심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역이다. 물길을 따라 강 주변에 만들어진 '희망의 숲'과 친환경 생태습지 등 녹지벨트는 자전거길과 함께 새로운 여가활동의 장으로 요긴하게 활용될 것이다.

1천여 년 전 신라 말기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상림(上林)은 경남 함양읍 위천강가에 조성된 대표적인 인공조림지로 전해지고 있다. 이 상림은 1천 년 동안 함양을 수해로부터 지켜줬고 지금도 지역주민의 쉼터로, 정원으로, 문화재로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다. 강가에 한 사람이 먼훗날을 보고 심은 나무가 숲을 이루어 말 없이 물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된 셈이다.

산림청은 올 한해 서울 남산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2만헥타르의 산림과 하천변, 공한지(空閑地) 등에 3천8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다. 내 나무를 갖는 일을 권장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나무 1백50만 그루를 나눠주고 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봄철에 심은 강변의 나무를 돌보는 나무 입양 사업을 아라뱃길에서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나무 한 그루씩 분양받아 자신의 양자목(養子木)으로 잘 가꿔간다면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구환경을 살리는 일에 내가 직접 동참하는 일이 될 것이다.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가 10월 10일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된다. 1백94개국 3천여 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제사회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것이다. 국토 면적의 65퍼센트를 차지하는 산림과 4대강 주변 경관을 정비해 그들에게 선진 한국에 걸맞은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G



글 · 이돈구 (산림청장)

"4대강살리기는 매년 홍수피해 줄일 것"

최근 10년 아열대로 변한 한반도 기후… 물폭탄에도 버티는 체제 갖춰야

한반도가 아열대기후로 변한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7월의 장마와 8월의 무더위로 이어지던 기상패턴은 이제 과거형이다. 여름철 태풍도 동해상이 아닌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 기상이변에 대비한 치산치수는 국가 업무의 근본이다. 그나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덜한 것은 4대강살리기로 인한 준설효과가 크다.

올 여름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한반도에서 벌어진 기상이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지난 여름 석 달 동안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평균 1천30밀리미터의 비가 쏟아졌다. 중부지방에서는 1천3백15밀리미터의 비가 퍼부었다. 평균적으로 1년 동안에 내릴 비가 지난 석 달 동안 한꺼번에 쏟아진 격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장마기간인 6월 22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서울에서는 8백밀리미터의 폭우가 내렸다. 특히 한강 유역인 경기도 양평에는 1천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1년 강수량의 70퍼센트에 해당되는 비가 한꺼번에 하늘에서 쏟아진 셈이다. 가공할 만한 이변을 연출한 것이다.

많아진 강수량… 깊어진 4대강으로 홍수 예방

그러더니 장마가 끝난 7월 하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다시 집중호우가 내렸다. 지난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는 산사태가 나 모두 1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강남역 등 서울 한복판의 저지대는 빗물로 침수됐다. 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대란은 물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기후로 변해 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지난 10여 년 사이 지구온난화로 생긴 변화로 추측된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날씨 특징 역시 눈에 띄게 변해 가고 있다. 장기간 축적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기상을 예측하는 사람으로서 곤혹스럽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한때는 장마철을 '제5계절'이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7월까지는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다가 8월이면 무더위로 이어지는 패턴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턴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여름철 장마기간이 따로 없다. 6월부터 8월이 아예 '우기(雨期)'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수시로 비가 오고 있다.

또한 올 여름 특징을 보면, 장마가 일찍 시작되고 일찍 끝났다. 남부와 제주지방은 평년과 비슷하게 한 달 정도 장마가 이어졌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장마기간이 평년보다 1주일가량 짧았다.

또한 장마기간에는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며칠씩 비가 왔다. 그러다 잠시 소강상태가 되며 쉬어 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올해는 소강상태 없이 끊임없이 비가 이어졌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월에 9일간 연속으로 비가 내리는 신기록을 세웠다.

6월과 7월에는 주로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비가 오지만 8월로 접어들면 한반도 전역에 대기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지적 집중호우가 쏟아진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 사이에는 7월보다 8월의 강수량이 많아지는 이변도 나타나고 있다.

예년과 다른 태풍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통상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하는 태풍 가운데 대부분은 동쪽으로 방향을 튼 다음 일본을 향해 이동한다. 하지만 올 여름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한 제5호 태풍 '메아리'와 제9호 태풍 '무이파' 등 2개의 태풍은 이례적으로 서해상을 따라 진출했다.

이들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비가 내린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더욱이 태평양상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숫자는 줄어든 반면 한반도까지 북상해 직간접 영향을 주는 태풍의 강도는 더욱 강해졌다. 예년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포해진 것이다.

태풍의 움직임도 예년과 달리 흉폭해져

이처럼 우리가 경험한 지난 여름 한반도 강수 형태는 이제 이변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도 있다. 인류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의 위협은 전혀 줄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을 비롯해 장마와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로 이어지는 우리나라까지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가 업무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고대 황제 요(堯)임금은 아들이 아니라 황하(黃河)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순(舜)임금에게 결국 제위를 물려줬다.



조선DB

지난 7월 쏟아진 집중호우로 서울 서초구 우면산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순임금 역시 치수에 능한 우(禹)임금에서 제위를 승계했다. 치수에 능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 온 것이다.

반대로 치산치수에 실패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안을 조성했다. 나아가 국가 안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세계사의 교훈이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물관리에 많은 힘을 쏟아 왔다. 4대강살리기 사업을 하는 까닭도 그 일환이다.

"치산치수는 동서고금 막론하고 중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 1백년 만에 나타난 올 여름 집중폭우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비교해 크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준설 효과와 선진 기상방재 시스템이 작동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기상청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등이 갖고 있는 기상레이더 25대의 자료를 융합하여 공동 활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 활용하기 시작한 천리안 기상위성과 슈퍼컴퓨터를 기상예측에 이용하는 것도 모두 강수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오는 10월 말 마무리될 4대강살리기 사업은 매년 늘고 있는 가공할 만한 여름철 강수에도 홍수피해를 줄일 것이다. 4대강 주변의 상습침수 지역에서 올 여름 같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없었던 것은 엄청난 비의 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의 수용 범위가 늘어난 원인도 있다.



해마다 새로운 기상기록이 만들어지는 기후변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과학적인 정보생산은 물론이고 정보를 활용한 최선의 방재대책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G

글 · 조석준 (기상청장)

‘홍수 심해질 것’ 주장, 결국엔 빗나가

수자원 이용률 미국 69·유럽 75퍼센트… 한국은 25퍼센트에 불과

지난 10년간 전 세계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4배 증가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지난 반세기와 비교해 14배 증가했다고 한다. 2005년 전라도 전역 1938년 기상관측 이후 최대의 적설량 기록, 2011년 1월엔 96년 만의 최대 한파, 2010년 여름 1백 년 만의 폭우, 2011년 7월 기록적인 서울 지역 집중호우….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가 바로 4대강살리기 사업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30위로 꼴찌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연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는가? 찬란했던 고대 이집트문명, 마야문명, 앙코르와트 왕조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가 힘없이 무너진 것은 장기간에 걸친 가뭄, 자연의 수용력 이상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물 부족 때문이었다.

독일 등 1980년까지 댐 건설… 수력발전 극대화

1954년 다뉴브강 유역 홍수로 서울 절반 면적이 침수됐고, 1965년엔 서울의 세 배 면적이 침수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물의 효율적 이용과 홍수통제를 위해 1980년까지 백만 톤 이상 저류할 수 있는 댐을 69개 건설했다. 총 7백여 개에 달하는 댐과 보 덕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수력발전도 극대화했다. 오스트리아는 특히 집중적인 댐 건설로 총 전기 발전량의 60퍼센트를 ‘청정에너지’인 수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수자원 이용도는 각각 75퍼센트와 69퍼센트 선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7퍼센트이고 아시아도 22퍼센트에 불과하다. 한국은 25퍼센트이다. 우리가 선진국과 같이 잘살기 위해서는 수자원을 최대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데도 환경단체는 수자원 이용을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는 환경복원 사업… 외국 사례로 확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뉴브강에 댐을 건설하고 나서 지천이 살아나고, 연중 1개월만 물이 있던 습지에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돼 물새와 어류가 번식하고 야생동물이 서식하게 됐다. 또 범람원이 산림화되어 이전 10개월을 건조 상태로 있던 2백킬로미터의 하천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고 한다.

환경단체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가 일어난다고 댐 건설을 극렬하게 반대했으나 건설 후 2년 뒤 오히려 생태계가 살아나자 슬그머니 철수했다는 보고도 있다.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이 해왔던 것처럼 자연을 변형시키는 것도 용납을 해야 한다. 자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63명의 인명피해와 1조9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정부는 2007년 〈신국가방재시스템백서〉를 발간하고 10년 동안 87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현 정부 들어와 이러한 대책을 수정해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는 물론 수변공간을 확보하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4대강살리기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만일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했다면 매년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2016년까지 투자해야 했다.

노년기 지형 무시한 “강폭 확대” 주장은 비현실적

보다 더 경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다목적인 4대강살리기는 반대 측 주장에 밀려 지금까지도 국민의 공감을 제대로 못 얻고 있다. 4대강살리기를 하면 홍수가 심해진다는 일부의 주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도 끄떡없이 견딘 4대강으로 틀렸다는 것이 확인됐다. 기타 여러 주장도 과학적 증거 부족으로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반대 측에서 보를 건설하지 말고 준설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안으로 어떤 학자는 “일본과 스위스에서 하천 폭을 넓히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은 노년기 지형을 흘러 폭이 일본이나 유럽의 하천보다 훨씬 넓다. 지형적으로 우선 그 나라와 다르다.

또 하천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농경지는 얼마나 많은가. 보상비까지 고려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텐데 하천변을 매입해 폭을 넓히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또한 주민과의 보상 문



5백밀리미터의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든 영산강 승촌보. 평소에는 5미터의 수심을 유지해 일년 내내 물이 풍부한 강으로 가꿔준다.

제로 언제 공사가 완료될지 알 수도 없다. 하천을 넓혀 홍수터를 확보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인 것이다.

4대강살리기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도 반대 측은 단골로 문제 삼는다. 물론 공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런 사고로 인해 4대강살리기에 대한 당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역행침식 예견한 일… 안정되면 지천의 홍수위 저하

반대 측에서는 지천이 본류와 합류되는 지점에서 역행침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계획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겠지만 정부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대책을 세웠다. 문제는 예측지 못한 자연의 힘에 일부 지역에서 역행침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며 항상 균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마치 대재앙이 난 듯이 4대강살리기의 원래 목적을 훼손시키고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본류의 홍수위를 낮춤으로써 지천에서 거의 20킬로미터 지점까지 홍수위를 낮춘 효과는 인정하려 들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트집만 잡고 있다.

물 이용 측면에서는 환경단체도 책임이 있다. 사실 수자원 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은 환경단체의 집요한 반대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댐 건설이 무산되면서 수자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 찾기가 어려운 과제였다.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팔당댐 4개 건설'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4대강살리기란 것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책임지지도 않을 주장을 쉽게 한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반대를 무서워한다면 이는 훗날 큰 화를 가져올 것이다.

환경운동가보다 자격 갖춘 전문가 말 귀기울여야

이제는 국책사업에 반대하려면 과학적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환경운동을 하는 교수가 아니라 학자로서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자격을 갖춘 교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폴 콜리어 교수는 "자연은 자체의 순수성 때문이 아니라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자연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말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우리가 잘살려면 선진국과 같이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G

글 ·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과 종신교수)



박재광 교수

1970년대 말 한국의 하천이 심하게 오염된 것을 보고 하천 복원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병역의무를 마치고 1982년 유학길에 올랐다. 영국문화원 장학생으로 영국에서 하천수질관리와 복원 분야에 수학을 하고 하천오염물질 확산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24년째 교수로 재직 중이다.

反한류 시위도 꺾은 '밴드 5인방'

7월말 도쿄 부도칸 공연 2분만에 티켓 매진… 1만여 팬 환호

'K팝 한류'는 비단 아이돌그룹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다. 5인조 남성 FT아일랜드는 한류밴드로 당당히 한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밴드로선 처음으로 일본 음악계 성지로 불리는 '부도칸' 무대에 선 것은 물론 오리콘 주간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한류밴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일본 도쿄의 기타노마루 공원에 있는 부도칸(武道館). 노란색 팬라이트를 손에 든 팬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섰다. 이날 부도칸을 찾은 관객은 1만여 명.

이들은 한국의 남성 5인조 밴드 FT아일랜드가 지난 6월 29일 나고야를 시작으로 오사카(7월2일), 도쿄(7월6일), 후쿠오카(7월8일) 등을 돌며 진행한 'FT아일랜드 투어 2011 서머 파이널메신저'의 피날레를 지켜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리더 최종훈을 비롯해 보컬 이홍기, 베이스 이재진, 드럼 최민환, 기타 송승현 등 멤버들이 공연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일본 팬들은 준비한 노란색 팬라이트를 일제히 켜고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FT아일랜드는 '브랜-뉴 데이(Brand-new days)'를 시작으로 일본에서 발표한 히트곡들을 화려한 연주와 함께 선보이며 공연장을 후끈 달궜다.

2천명 관람 허용에 4만명 응모

부도칸은 일본 음악계에선 성지로 불린다. 그만큼 부도칸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일본 가수들 사이에서도 크나큰 영광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동방신기, 빅뱅, SS501, 슈퍼주니어, 신화, 박용하, 류시원, 안재욱 등 많은 한류 가수가 이 부도칸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FT아일랜드의 공연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댄스, 발라드 장르에서는 K팝이 일본 음악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록 밴드 부문은 사실상 K팝이 한 단계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한국적 록을 내세운 FT아일랜드가 부도칸 무대에 섰다는 것은 일본 음악 시장에 연착륙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주목받을 만했다. 특히 이번 부도칸 공연은 약 2분 만에 티켓이 모두 판매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FT아일랜드 멤버들은 "부도칸은 밴드들에게 정말 꿈의 무대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공연을 했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다"며 "콘서트에 와 주신 많은 팬 여러분, 또 저희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더욱 좋은 음악을 들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첫 앨범 오리콘 주간차트 1위에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8월 7일, 일본 도쿄 오다이바에서 열린 후지TV의 '메자마시 라이브'. 주인공은 역시 FT아일랜드였다. 라이브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2천명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FT아일랜드를 보기 위해 약 4만명의 응모자가 몰렸다. 이는 역대 최다 관객 응모 수로 기록됐다. 특히 공연장에 모인 관객은 약 1만명으로 '메자마시 라이브'가 생긴 이래 최다 관객을 동원했던 빅뱅의 8천명 기록도 경신했다.

무엇보다 이날 비슷한 시각에 후지TV 주변에서는 한류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펼쳐져 혹시라도 녹화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FT아일랜드를 향한 일본 팬들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당히 K팝 열풍의 한 축이 된 FT아일랜드는 지난 8월 13일 인천 문



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1 인천한류관광콘서트'에 한국 밴드를 대표해 참석하기도 했다.

FT아일랜드의 일본 내 활약상은 콘서트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수들의 인기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인 음반 판매량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미국에 빌보드 차트가 있다면 일본에는 오리콘 차트가 있다.

FT아일랜드는 지난 5월 이 오리콘 차트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바로 일본에서 발매한 첫번째 정규앨범 '파이브 트레저 아일랜드'가 오리콘 앨범 부문 주간차트 1위에 오른 것. 이 앨범은 발매 당일 일간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첫 주에만 3만7천 장이 팔려 나갔다.

해외 남성가수가 첫 앨범으로 주간차트 정상을 차지한 것은 오리콘이 앨범순위를 발표한 지난 197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FT아일랜드가 여느 아이돌 그룹처럼 K팝 열풍을 타고 일본 메이저 무대에 바로 데뷔한 게 아니라 지난 2008년부터 소규모 라이브 클럽 등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며 기반을 다져 온 결과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일본 데뷔 싱글 '플라워 록(Flower Rock)'으로 오리콘 싱글 데일리 차트 4위에 오른 뒤 불과 1년 만의 쾌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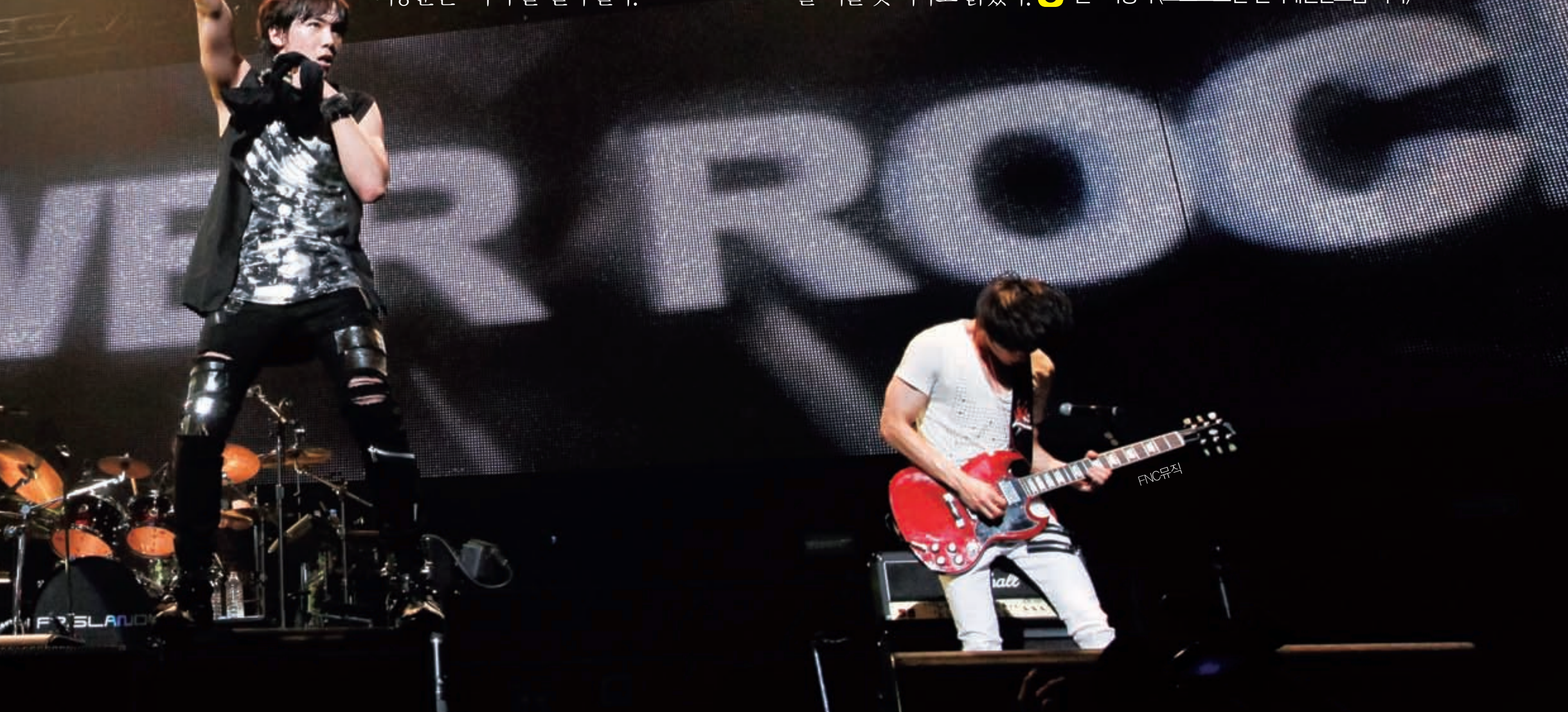
당시 공연 중에 오리콘 정상 등극 소식을 접한 멤버들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FT아일랜드가 일본에서 거두고 있는 성적은 기대 이상이다. 하지만 멤버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리더 최종훈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의 밴드 그룹이 일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느 정도 길을 터놓았지만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본다"며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팬들에게 고맙고 앞으로도 오래 음악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일본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국내 활동은 다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발표한 미니앨범 '리턴'은 1년 만에 선보이는 새 앨범이었다. 국내에서의 인기가 흔들리면 해외에서의 활동도 탄력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양쪽을 모두 신경써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일본서 오래전 인디밴드 활약의 결과"

여기에 그동안 일본에서 보여준 음악적 색을 어떻게 국내 팬들의 입맛에 맞게 풀어 내느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사실 FT아일랜드는 국내에서는 중독적인 멜로디나 선율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했지만 일본에서는 신나는 곡이나 록 사운드, 슬픈 발라드 등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소속사인 FNC뮤직 이승호 이사는 "한국과 일본에서 보여준 음악색이 약간 달랐다. 하지만 그 안에는 FT아일랜드만의 색이 분명 녹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FT아일랜드는 K팝이 인기를 얻기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인디 밴드로 활동을 해 왔다. 깜짝 스타라기보다는 꾸준히 바탕을 다져 온 결과가 빛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에서는 라이브 공연 위주로 활동하며 밴드로서의 이미지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이정혁 (스포츠조선 엔터테인먼트팀 기자)


FNC뮤직

걸그룹 못지않은… “우리 가락 좋을시고”

국립국악원, 우면산 산사태 피해복구 도와준 육군 52사단서 ‘보은 공연’

국립국악원은 지난 7월 폭우와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수해복구에 도움을 준 장병을 위해 지난 8월 30일 저녁 7시에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육군 52사단 212연대 관동교장에서 감사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민속악단, 정악단 단원 30여 명이 출연해 국악관현악 등을 연주했다.

구성진 민요가락이 울려 퍼지는 강당 안, 관람석을 가득 메운 군복차림의 장병들은 한 소절이라도 놓칠까 무대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공연 감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국악의 주청취층이 아닌 젊은 장병들에게 국악 공연이라니.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객석을 가득 메운 육군 52사단 212연대 장병 6백여 명은 누구 하나 지루한 기색 없이 오히려 공연 내내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무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악을 국민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의 공연은 국립국악원이 준비한 위문공연이었다. 공연을 준비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권성택(44) 악장은 “지난 폭우로 국립국악원이 수해를 입었는데 국군장병 여러분들께서 복구를 해 주셨다”며 “혼신을 다해 복구작업에 임해 주신 장병 여러분들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국악 공연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의 위문공연을 기획했다”고 공연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인근 주민 16명이 사망하고 4백여 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를


한용환 기자

“수해복구 도와줘서 고마워요.”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지난 8월 30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육군 52사단 212연대 관동교장에서 장병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있다.

기록한 지난 7월의 우면산 산사태로 서초동 국립국악원은 주차장을 비롯한 건물 외관이 토사와 나무로 뒤덮이고 전기실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극장운영이 중단돼 예정된 공연이 모두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재해를 딛고 국립국악원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극장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수해복구를 위해 애를 쓴 국군장병들의 힘이 컸다.

복구작업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장병들에 대한 감사인사로 열린 이날의 공연은 국립국악원의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 같은 공연이었다. 공연은 국악관현악인 〈프론티어〉로 시작됐다. 재일동포 출신의 국악가 양방언이 작곡한 곡으로 2002 부산아시안게임 테마곡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곡이다.



지난 7월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온 국립국악원에서 군 장병들이 피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악의 신명을 클래시컬한 음악요소 속에 담아낸 〈프론티어〉가 창작국악의 웅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면 그 뒤를 이은 〈아리랑〉 연곡에선 귀에 익은 친숙한 멜로디와 가사로 장병들의 흥을 돋워주는 각 지방별 아리랑이 연달아 연주됐다.

청아하면서도 화려한 해금솔로와 국악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이뤄진 해금협주곡 〈추상〉은 장중한 멜로디로 창작국악의 깊이를 보여줬다. 뒤이어 연주된 〈제비노정기〉는 우리에게 친숙한 〈흥보가〉의 눈대목을 현대적인 노래로 재탄생시켜 객석의 흥을 돋웠다.

아리랑부터 국악풍 가요 · 팝도 선보여

이외에도 제주민요를 편곡한 〈너영나영〉, 놀이판과 굿판의 즉흥연주를 연상시키는 거침없는 연주로 풍물놀이의 느낌을 재구성한 〈신푸리〉 등의 창작국악과 〈아름다운 강산〉, 〈오버 더 레인보우〉 등 국악풍으로 편곡한 가요와 팝 공연이 이어지면서 객석은 한층 달아올랐다. '국악공연은 지루하고 딱딱할 것'이라는 종래의 선입관을 단숨에 날려 버릴 만큼 흥겹고 다채로운 감성으로 가득한 무대를 보여줬다.

권 악장은 "전통을 가미한 창작국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장병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도록 친근한 느낌을 주는 곡들을 선정했으니 국악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던 분들도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이 끝나고 손영수(22) 상병은 "지방출신이기 때문에 국립국악원 같은 큰 단체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군대에 온 덕분에 이렇게 대단한 단체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든다"며 "평소 국악에 대해 큰 관심 없이 흘려들었는데 오늘 공연은 듣기에도 어렵지 않았고 너무 감동적인 연주여서 좋았다"고 감상을 밝혔다.

장병들 "할 일 했을 뿐인데 위문공연 와줘 오히려 감사"

예전에 비하면 병영 내 문화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우리 병영과 문화공연은 너무나 먼 관계다. 군악대나 국군방송 위문열차 등의 위문공연이 있긴 하지만 전국의 병영을 돌며 열리다 보니 군생활 중에 제대로 된 위문공연을 보지 못하고 제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실에서 국립국악원의 위문공연은 장병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다.

"저희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국립국악원 측에서 위문공연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기뻤다"는 박윤미(27) 대위는 "병영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있어서 평소에 공연을 보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장병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고 공연소감을 전했다.

박 대위는 "제대로 짜인 공연을 보기 힘든 장병들이 국립국악원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단체를 직접 접하고 연주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장병들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 · 이윤진 객원기자

취업률 100퍼센트 농협대학 박해상 총장

“작지만 강한… 마이스터大라 부를 수 있죠”

농협대학은 ‘작지만 강한 대학’이다. 전체 학생 수 4백60여 명에 불과하지만 취업률은 1백퍼센트다. 3년제 전문대지만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몰려든다. 등록금도 수도권 전문대의 75퍼센트 수준이다. 그 결과 지난해 입학 경쟁률은 14대1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부터 농협대학을 이끌고 있는 박해상 총장을 만나 경쟁력의 비밀을 들어봤다.



하재성 기자

박해상 농협대학 총장은 “선취업·후교육 제도를 활성화해 전문교육만 받아도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대 인재양성은 정부의 마이스터고 인재육성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8월 17일 경기도 고양시 농협대학에서 만난 박해상(62) 농협대학 총장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너도나도 4년제 대학으로만 몰리면 국가산업 원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며 “유럽 선진국의 경우처럼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선취업·후교육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대학은 ‘작지만 강한 대학’이다. 농협중앙회 산하의 3년제 전문대로 전체 학생은 4백60여 명에 불과하다. 협동조합경영과가 유일한 학과로 교수도 7명이 전부다. 고양시 원당동에 캠퍼스를 두고 있어 서울 소재 대학도 아니다. 하지만 농협대학은 ‘1백퍼센트’ 취업률을 자랑한다. “‘농협에 가기 싫다’는 학생 빼고 다 취업한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등록금은 수도권 전문대 75퍼센트에 불과

그 결과 지난해 농협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14대1에 달했다. 박해상 총장이 선취업·후교육 활성화와 전문대 인력 양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도 이런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외면으로 수도권과 지방 소재 2~3년제 전문대 상당수가 폐교 위기에 내몰려 있는 현실과 비교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전문대가 쇠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가만히 놔두면 도태됩니다. 사실 농협대학은 1962년 설립 후 오랫동안 답습을 면치 못했죠. 학생과 교직원 수만 놓고 봐도 초창기와 별로 다르지 않고, 역대 총장은 퇴직을 앞둔 농협중앙회 임원이 맡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래서는 우수한 학생이 와도 학교가 발전할 수 없죠.”

박해상 총장이 농협대학을 이끈 것은 지난 2009년부터다. 상고(대구 협성상고)와 지방대(경북대 농학과)를 나온 박 총장은 기술고시를 거쳐 한국농업전문학교장, 농림부 차관까지 지낸 농업 전문

가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그의 전문성을 높이 사 농협대학을 맡아줄 것을 권했다. 퇴직을 앞둔 농협중앙회 출신 임원들이 대학 총장을 돌려 맡던 관례를 깬 것이다.

박 총장은 취임 후 새로운 실험을 단행했다. 농협대학 개교 이래 최초로 정부지원금을 따낸 것. 농협대학은 지난 4월과 7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브랜드사업 전문대로 선정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각 4억9천만원과 3억9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모두 9억원가량으로 학생 1인당 2백만원가량 돌아가는 셈”이라고 박 총장은 설명했다.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덜어지는 셈이다.

“사실 다른 사립대는 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운영하잖아요. 대신 정부지원금은 취업률, 교수진, 교육내용 등 다방면을 평가해서 줍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으려면 평가 관련 자료도 만들고, 실사도 받아야 하니 번거롭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지만 준비한다고 해서 꼭 선정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부지원금을 따내려는 노력 자체를 안 했어요.”

농업유통 · 금융에 특화된 전문과정 내년 추가 운영

박 총장은 정부지원금으로 농협대학 3학년생 전원을 9월 한 달간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이다. 교과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만 엄격히 사용이 제한돼 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선택한 것. 지난 2009년 3년제로 승격돼 3학년 학생 다 합쳐 40여 명에 불과하지만 개교이래 사상 첫 학년 전체 어학연수라 졸업을 앞둔 학생들도 대환영이다.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농협대학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농협대학의 등록금은 수도권 사립 전문대의 75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농협에서 대학 운영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협동조합경영에 전문화된 맞춤형 인력을 공급받는 대가다. 나머지 금액만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저렴한 등록금과 1백퍼센트 취업보장으로 농협대학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든다. 3년제 전문대로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일반 학생 ▲농촌지역 학생 ▲전문대졸 이상으로 지역 농협조합장이 추천하는 학생을 각각 3분의 1씩 나눠 뽑는데, “일반전형 학생들의 경우 연고대 상위권 수준의 성적”이란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농협대학 졸업생의 실력은 농협 내에서도 인정받는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이덕수 농업경제대표도 농협대학 출신이다. 선출직 농협중앙회장을 제외하면 농협의 경제사업


조선DB

농협대학 협동조합경영과 학생들이 경영학 관련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다.

을 이끄는 최고위직까지 전문대인 농협대학 출신이 올라간 셈이다. “한때는 농협 상무 이상 절반이 농협대 출신이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 총장은 내년부터 또 다른 실험을 구상하고 있다. 유일한 학과인 협동조합경영과를 그대로 유지한 채 농업유통과 농업금융에 특화된 전문과정을 추가 운영하는 것이다.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계획에 따라 유통경제 부문과 금융부문으로 이원화되는 농협 실정에 맞춰 특화된 인재를 공급하려는 것이 박 총장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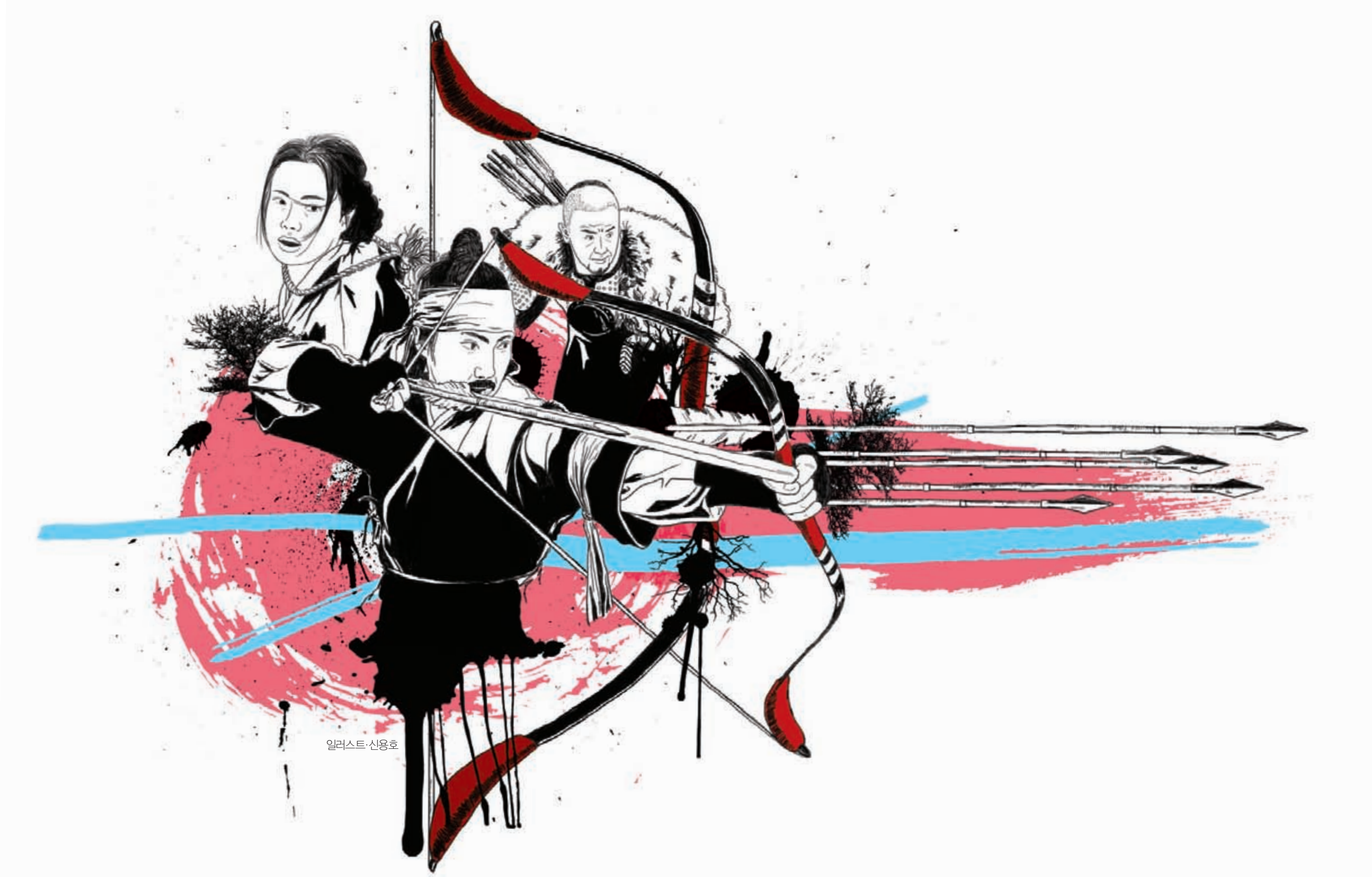
또 이 실험을 마무리하면 향후에는 농촌 사회에 필요한 복지인력도 키워 낼 계획이다. “최근 농촌 인력의 고령화, 다문화가정 급증 등으로 농촌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박 총장은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맞는 전문인력 공급을 뒷받침해 주면 자연히 취업도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은 바이오기술 ·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기간산업”

박해상 총장은 농업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 풍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 총장은 “농업은 바이오기술(BT)과 연결되는데 우리 사회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며 “1990년 이후 BT는 세계적으로 해마다 25퍼센트씩 성장하고, 우리나라도 30퍼센트씩 커지는 만큼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업은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 해외에서 식량을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곡물값이 급등하고 있어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우리 농협대학이 농업 및 유관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되도록 키워 낼 생각입니다.” G

글 · 이동훈 기자



일러스트·신용호

활을 소재로 한 병자호란 이야기 〈최종병기 활〉

민초들의 삶을 위한 무기… “활은 活이다”

올 여름 최고의 흥행기록을 보이고 있는 영화, 〈최종병기 활〉(감독 김한민)은 17세기 초 병자호란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다. 영화는 우리 민족이 중국 청나라에 침략을 받은 뼈아픈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환란의 가운데서도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남이(박해일 분)와 자인(문채원 분) 남매의 활을 둘러싼 활약을 통해 살아 있다는 것의 숭고함과 민초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의 주요한 소재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활’ 이다. 활과 화살은 순수 우리말이다. 활을 중국에서는 궁(弓)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순수 우리말 ‘활’ 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여기에 ‘산다, 살아간다’는 뜻의 한자 ‘활(活)’ 자를 쓰기도 한다.

무기에 산다는 뜻의 활 자를 쓴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이 전쟁과 무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무기인 활도 침입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무기이지 절대 타인을 해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영화에서도 신궁 남이는 “자신의 활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한다. 영화는 제목에도 이 한자 활(活)을 넣어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족의 혼에 각인된 소재로 올 여름 최고 흥행작

우리 민족이 활을 쓰기 시작한 것은 문헌상으로는 고조선 때부터라고 하는데 훨씬 더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문헌에 보면 고조선의 활을 단궁(檀弓)이라고 부르며 당시 최고의 활이라고 평

하고 있다. 이 단궁은 박달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길이가 짧은 단궁(短弓)이었다고 전한다.
활은 길이로 장궁과 단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주로 쓴 활은 단궁이었다. 단궁의 궁간은 2m 이하로 휴대가 편하며 화살의 거리가 멀고 정확한 것이 장점이었다.

조선시대 활은 삼국시대부터 쓰여진 각궁을 주로 썼다. 각궁은 물소 뿔과 소 힘줄, 나무 등이 주요 재료이다. 물소 뿔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는데 조선초기에는 명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너무 잘 다루어 자기들 국방에 위협이 된다고 하여 물소 뿔을 수출하지 않으려 한 일도 있었다.

영화 속에서 남이가 쓰는 활도 짧고 휴대하기 좋으며 단단한 각궁으로 보인다. 활은 만드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하나 만드는 데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가질 수 없었다. 영화에서도 활은 주인공 남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소중하고도 매우 의미있는, 가문의 상징처럼 나온다.

조선의 각궁 對 청나라의 6량전 대결

화살의 종류는 다양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대나무를 주재료로 만든 20그램 정도의 유엽전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재료와 길이, 무게 등에 의해 화살은 여러 종류로 나누어졌다. 영화에서 보자면, 주인공 남이는 주로 나무에 철로 된 화살촉을 단 철전 중 장전을 가지고 다닌다. 이 장전의 무게는 1냥(37.5그램) 정도로 휴대하기 적당한 화살이었으며 일반적으로 전투에 많이 쓰였다.



조선DB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최종병기 활〉은 무거운 역사의식을 덜고 활에만 집중한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다.

그러나 청나라의 쥬신타(류승룡 분)는 6량전(화살)을 쏘는 6량궁(활)을 가지고 다니는데 6량전은 무게가 6냥(2백20그램 이상)이 된다고 6량전이다. 화살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활의 길이도 길어야 했으며 당기는 힘도 어머어마하게 들어 6량궁은 개인이 휴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

영화에서는 활의 파괴력을 보여주기 위해 육량궁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설정했겠지만, 기실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날렵한 기마술과 가볍고 정확한 활과 화살 덕분이었다.

영화에서 남이가 화살이 다 떨어져 부러진 화살로 궁여지책으로 쓰는 애기살은 이름과는 달리 화살 중에서 가장 파괴력이 크다. 애기살은 그 길이가 보통화살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8촌 정도라 그냥은 시위가 당겨지지 않고 반드시 통아라는 대나무 대롱에 붙여서 쏘아야 했다.

하지만 사정거리는 보통화살의 2배인 3백미터가량이었고 철갑을 뚫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으며 화살이 짧아 낮에도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표적을 맞히는 장점을 가졌다. 영화에서도 쥬신타가 애기살의 위력을 두려워하며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병사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이 애기살에 의해서라고 이야기한다.

조선시대 학자 이수광도 〈지봉유설〉에서 조선의 대표적인 무기는 애기살이라고 하였고 국경에서는 편전쏘기(애기살쏘기)를 금지해서 외국에 이 기술이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널리 쓰이던 기술이었다.

'애기살'은 청나라 병사들의 공포의 대상

활은 임진왜란 이후 조총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에도 주요한 전쟁무기로 이용되어 왔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활은 매우 익숙한 무기였던 것이다.

영화에서 남이가 구사하는 곡사는 기실 영화적 재미를 위한 허구이다. 어떤 활도 시위를 틀어 그러쥔다고 화살이 휘어서 날아가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혹시 모를 일이다. "두려움에 직면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조선시대 신궁이라면 진짜 곡사포를 쏠 수 있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G

글 · 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경기도 양평

세미원에서 미움을 씻고 간이역에선 추억을 싣는다

길고 지루하던 장마도 이제야 끝이 난 모양이다.
불볕더위도 한결 누그러들었다.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쌀쌀하다.
어디론가 떠나지 않고는 못 배길 날씨다. 가까운 곳으로라도 떠나고 싶은 이들에게 양평을 추천한다.
멋진 정원과 예쁜 간이역, 신나는 레일바이크가 기다리고 있다.



간이역 여행은 가을이 제격이다. 구둔역엔 가을 꽃이 활짝 피었다.



세미원에서는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두물머리 옆엔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정원이 있다. 바로 세미원이다. 면적 18만제곱미터 규모의 정원 안엔 연꽃으로 뒤덮인 6개의 커다란 연못과 산책로, 창덕궁 장독대를 묘사한 분수대, 유상곡수(流觴曲水) 등 풍성한 볼거리가 들어앉아 있다. 세미원이라는 이름은 〈장자〉에 나오는 '관수세심 관화미심'(觀水洗心 觀花美心: 물을 보면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면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에서 따왔다.

세미원의 정문 격인 불이문을 지나면 울창한 숲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이 나온다. 시냇물 가운데로 돌다리가 깔려 있는데 인공으로 조성해 놓은 것 같지 않게 운치 있다.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에 귓전이 시원하다.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수상정원, 세미원

시냇물을 건너면 한반도 모양의 공원이 있다. 고산식물과 무궁화 등을 심어놓았는데 수많은 항아리로 장식된 분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을 위해 비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한다. 크고 작은 항아리 3백65개를 이용한 것으로 항아리마다 분수가 솟아오른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다.

항아리 분수를 지나면 커다란 연못이 펼쳐진다. 이 연못에는 백련, 홍련, 가시연, 수련 등 1백여 종의 연꽃을 비롯해 가는잎네갈퀴, 생이가래 등 4백 종의 수생식물이 자란다. 연못을 돌아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이곳의 길은 돌 빨래판으로 되어 있어 걷는 느낌도 색다르다. 끝자락엔 '모네의 정원'도 들어서 있는데, 프랑스의 화가 모네가 그린 수련 정원을 옮겨놓은 것이다.

연못 곳곳에는 청계천 수위를 재던 수표, 조선시대 청화백자용문항아리 등 선인의 지혜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다양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 산책의 재미를 더해 준다. 세미원을 둘러본 뒤 3천원짜리 입장권을 농산물판매장에 제시하면 3천원어치의 쌀과 야채, 음료 등으로 교환해 준다는 점도 흥미롭다.

세미원을 나와 체육공원 앞을 지나 다리를 건너면 왼쪽 물길을 따라 산책로가 나온다. 20분쯤 걸으면 두물머리다.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이 남한강과 만나는 곳. 두물머리는 양평의 대표적인 명소다. 4백년간 두 물줄기가 만나는 모습을 지켜본 거대한 느티나무가 두물머리의 운치를 더해 주고 있다.

꼬불꼬불 산길을 따라간다. 도무지 역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정말 이런 곳에 역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 예쁘고 아담한 간이역이 나타난다. 구둔역이다. 구둔역이 자리한 구둔마을은 임진왜란 때 이곳에 9개의 진지가 구축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둔역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법 북적이는 역이었다. 용문산 일대에서 약초와 취나물, 두릅을 뜯어 경동시장으로 팔러나가는 노인들이 새벽기차를 타기 위해 구둔역을 찾았다. 양평에 장이 서는 날이면 장보러 가는 주민들과 기차로 통학하는 학생들로 붐볐다.

하지만 이제는 옛말이다. 젊은이들은 거의 떠나갔고 마을에도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기차를 타는 사람은 없다. 구둔역에도 하루 90여 대의 기차가 들어오지만 그냥 지나치는 통과열차다. 청량리에서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세 번 설 뿐이다. 지난 1996년부터는 아예 기차표를 팔지 않는 간이역으로 전락했다.





양평 레일바이크(왼쪽 사진). 구둔역은 기차가 지나치는 조그만 간이역이지만,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 일부러 찾는 이들이 많다.

1940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구둔역. 처음 생길 때와 모습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시멘트와 목조로 건축된 역사는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서 있다. 녹색 페인트로 덧칠한 대합실 나무벤치엔 구둔마을 사람들의 체취가 오롯이 배어 있다.

대합실 앞 화분에는 가을꽃이 활짝 피었다. 은행나무와 향나무가 오가는 이를 보내고 맞는 구둔역은 역이 아니라 예쁜 정원 같다. 구둔역은 2006년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뽑히기도 했다.

구둔역 못 미쳐 수진원서 전통된장 맛구경

구둔역 가기 전 잠깐 들러볼 만한 곳이 있다. 용문면 삼성리에 자리한 수진원이라는 농원이다. 전통된장을 담그는 곳이다. 6백여 개의 된장 항아리가 가을볕을 받으며 보기 좋게 늘어서 있다.

수진원을 만든 고 정두화 옹은 허영만의 만화 〈식객〉에도 등장한 인물이다. '말표 구두약'을 탄생시킨 정옹은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양평으로 내려와 수진원을 일구었다.

수진원 사람들은 뒤편에 있는 2만5천 평의 밭에 직접 콩을 재배해 매년 11월에 메주를 쑤고, 이듬해 1~2월에 장을 담근다. 그리고 4~5월엔 간장과 된장을 뜨고 이렇게 만든 장을 사려는 이들이 전화주문을 해오면 택배로 보내준다. 농원은 한국적이라기보다는 이국적이다. 동화에나 나올법한 예쁜 건물이 서 있고 분수가 솟구치는 연못이 자리하고 있다. 눈부신 가을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은행나무길은 산책로로도 손색이 없다.

얼마 전부터 레일바이크를 양평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양평 레일바이크는 중앙선이 개통되면서 폐선이 된 철로를 이용해 개발한 것으로, 용문~원덕까지 왕복 6.4킬로미터 구간에 마련돼 있다.

철로 한쪽으로는 흑천이 흐르고 있고 한쪽으로는 칠읍산이 서 있다. 이렇게 산과 개울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레일바이







수진원에는 6백여 개의 된장 항아리가 있다(위 사진). 중미산자연휴양림통나무집(아래 사진).

크의 또 다른 매력이다. 과수원과 논밭이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하며 페달을 밟는 재미가 쏠쏠하다.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20여 분. 회차 구간에 20여 분 정도 휴식시간이 있어 실제로는 1시간이면 충분하다.

용문~원덕 왕복 6.4킬로미터 레일바이크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중미산자연휴양림에서의 1박도 흥미롭다. 백운산, 유명산, 용문산 등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마치 강원도 산골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숲 체험코스 1.2킬로미터, 태교의 숲길 6백미터, 등산로 6.4킬로미터 등 숲 산책로가 잘 정비돼 있고 중미산천문대 등이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찾기 좋다.

등산로를 따라 40분 정도 가면 정상에 닿는다. 남한강, 북한강은 물론 서울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숲속의 집을 비롯해 오토캠핑장도 운영하고 있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 (시인 · 여행작가)

여·행·정·보

가는 길 6번 국도를 따라 양평 방향으로 가다 신양수대교를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내려가 양수리 방향으로 가면 된다. 세미원 팻말이 잘 정비돼 있다. 주차료는 무료, 양서문화체육공원에 하면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중앙선 전철을 이용해 양수역까지 간다. 양수역에서 세미원은 7백미터 거리다.

잠잘 곳 **중미산자연휴양림**(031-771-7166)은 옥천면 신복리에 있다. 총 56개의 캠핑 덱이 있는데 숲에 둘러싸인 느낌이 일품이다. **생각속의집**(031-773-2210, www.mindhome.co.kr)은 건축가 민규암씨가 지은 현대식 펜션이다. 노천탕을 갖춘 객실도 있다.

먹을 곳 **옥천냉면**(031-773-3575)이 유명하다. 메밀에 감자가루를 적당히 배합해 만든 면발이 퉁길 듯 탱탱하다. 양지와 설깃(엉덩이살)으로 우려낸 육수를 살짝 얼려 내놓는데 그 맛이 시원하기 그지없다.

기타 레일바이크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30분 간격으로 총 9회. 이용요금은 2인승 1만8천원, 4인승 2만6천원. www.ypráilbike.com, 031-775-9911

몸 속 나쁜 기운 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단백질을 주로 하는 근육과 칼슘이 주성분인 뼈 등이 주요 요소이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다. 기운이다. 한의학을 비롯한 동양의 전통에 따르면 몸속에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있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나쁜 기운이 강하게 몸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서양에도 비슷한 생각은 있다. 흔히 하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건강한 정신, 좋은 기운과 건강한 몸의 관계를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강화하는 태극권도 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단전에 마음과 기를 모으고 호흡을 깊이 해 기와 함께 온몸에 순환시키는 소주천, 대주천의 운기는 몸속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청신한 몸을 유지하게 하는 기본이 되는 수련이다. G

몸통을 튼튼히 하는 행심공법

마음을 청정하게 다잡는 쌍룡강하의 동작과 함께, 몸통 전체를 튼튼하게 보강하는 간단한 행심공법을 배워보자. 내장을 튼튼히 하고 위장병과 소화불량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배가 더부룩한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증강시킨다. 옷을 벗은 상태로 행하면 더욱 큰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1 양손을 마주 비벼 열이 나게 한 다음, 먼저 오른손으로 가슴과 윗배 부위를 시계방향으로 36회 문지른 후, 다시 손을 비벼 열이 나게 한 다음, 왼손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36회 문지른다.



2 양손을 마주 비벼 열이 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아랫배 부위를 시계방향으로 36회 문지른 후, 다시 손을 비비고 왼손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36회 문지른다.



대한태극권협회 명예회장인 이찬 선생이 누구나 쉽게 태극권을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CD가 함께 있어 초보자도 쉽게 익힐 수 있다. 동아E&D 펴냄 · 1만4천5백원

쌍룡강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좋은 기운을 쌓아라

태극권의 본격적인 수련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동작 중 쌍룡강하 초식이 있다. 이는 깊은 호흡과 함께 천천히 진행되는 수련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몸 안의 나쁜 기운을 배설하는 동작이다. 동시에 정신을 단전에 집중해 좋은 기운을 단전에 쌓는다. 이를 통해 청정한 기가 오장육부의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나쁜 기운을 밀어낼 때, 혈압과 혈당도 내린다는 기분으로 동작을 하는 게 좋다.



1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끝을 11자로 놓는다. 온몸의 힘을 빼고 호흡을 들이쉬며 천천히 양팔을 들어올린다.



2 양손을 뒤로 당겨 오는데, 팔꿈치를 벌리면서 양손이 안쪽 윗가슴 앞까지 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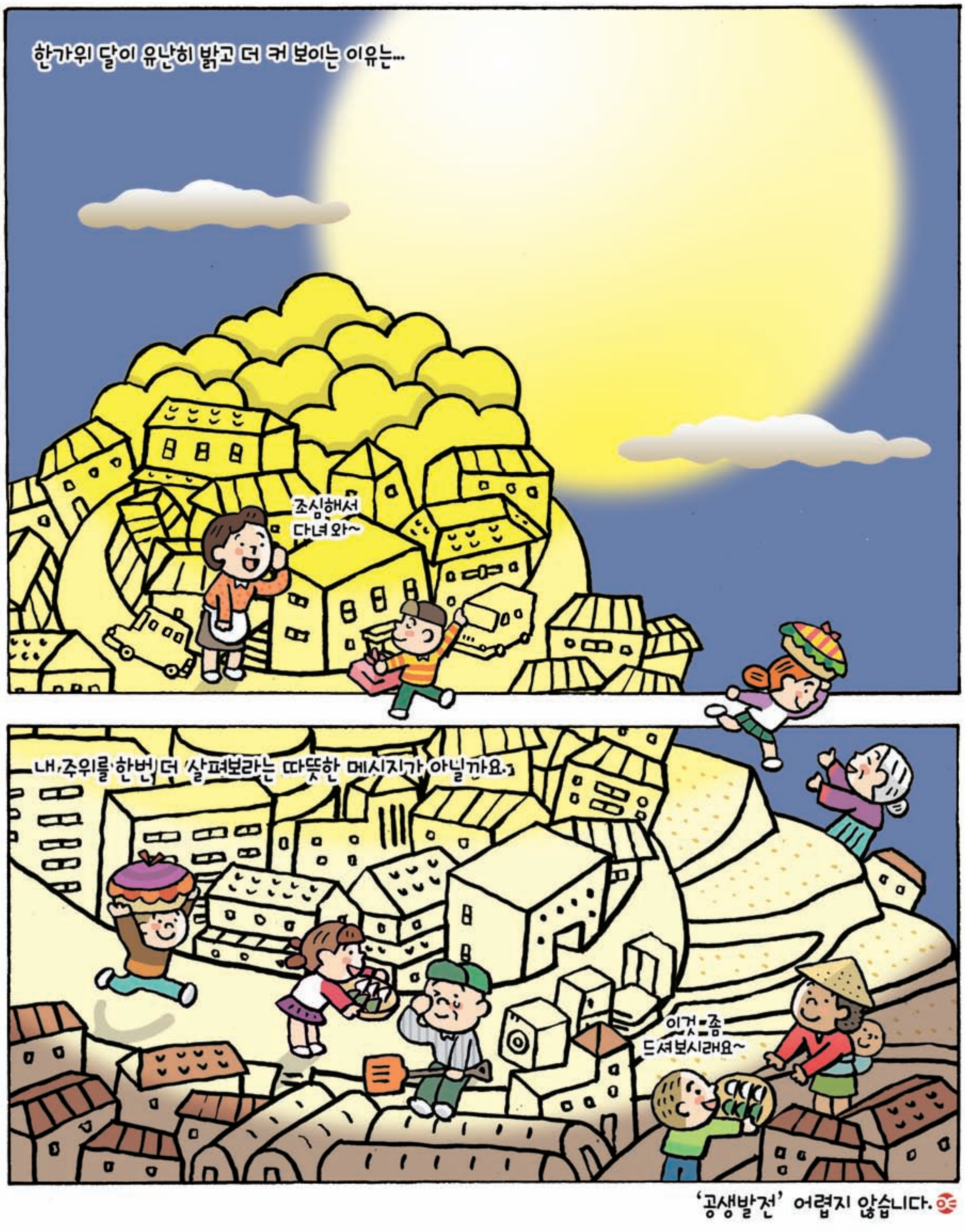
3 숨을 내쉬며 천천히 양손을 밑으로 내린다. 양손 끝이 서로 마주보듯 안쪽을 향하게 유지하고 단전 위까지 내린다.



4 손등을 앞으로 하고 팔을 충분히 늘어뜨려 첫 동작으로 돌아간다.

한가위 달의 비밀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국악 **〈한가위 국악한마당〉** 온 가족이 함께하는 민속명절 추석을 특별하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국악축제가 열린다. 〈한가위 국악한마당〉에서는 국악기 체험, 각종 전통문화 체험행사와 풍물패의 길놀이, 축하공연 등을 입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가위를 맞아 대형 윷놀이, 디딜방아, 맷돌, 절구, 다듬이, 투호, 고리던지기 등 다양한 한가위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다. 전통과 현대, 악·가·무·연희가 함께하는 무대구성으로 화려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일시 9월 12일 **장소** 서울광장 **문의** 02-731-6714



전시 **〈야생 들국화 전시회〉** 들국화의 개체보존에 노력을 기울이며 개최하게 된 제7회 들국화 전시회가 찾아온다. 경기도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한국정원에서 구절초 군락을 배경으로 이뤄지는 전시회로, 자연스러운 풍경과 들국화 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회에서는 '들국화'라 부르던 꽃들이 각각 벌개미취, 구절초, 감국, 개망초, 개미취 등 고유의 이름표를 달고 전시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즈넉한 전통가옥과 30여 종의 들국화가 작품으로 전시되고 있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황홀한 동양화를 보는 듯해 초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일시 9월 10일~10월 9일 **장소** 경기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 내 한국정원 **관람료** 성인 8천원 학생 5천원 **문의** 1544-6703



축제 **〈평창효석문화제〉** 메밀의 고장인 평창군 봉평면에서 '소설처럼 아름다운 메밀꽃 밭'이라는 주제로 소설 속 구절처럼 한 편의 시와 수묵화 같은 풍경이 연출된다. 올해 평창군에선 이효석 생가 터 주변 1백70여만제곱미터의 면적에 메밀을 심고 꽃밭을 만들어 이효석 문학의 순수함에 흠뻑 빠져들도록 했다.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ISO 9001인증을 받은 〈효석문화제〉는 효석문화마을과 먹거리촌을 중심으로 봉숭아 물들이기 등 7가지의 자연체험과 통나무 빨리 자르기, 우마차 끌기 등 8가지의 전통체험과 기념 기획전이 준비돼 있다.

일시 9월 9~18일 **장소** 봉평면 일원(문화마을 일대) **문의** 033-335-2323

공연	장소	날짜	문의
뮤지컬			
고궁 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경희궁 숭정전	9월 1~21일	1577-3363
러브인뉴욕	대학로 SH 아트홀	9월 30일까지	02-3141-3025
셜록홈즈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1관(구. 이다1관)	9월 25일	02-588-7708
온에어 초콜릿	대학로 더굿씨어터	10월 3일까지	070-8633-6306
연극			
연애시대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9월 23일 ~11월 20일	02-556-5910
국화꽃 향기	KT&G 상상아트홀	10월 9일까지	070-8263-1360
보이체크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9월 10일까지	02-3279-2233
알 세스티스	대학로 나온씨어터	9월 11일까지	02-3675-3676
콘서트			
에릭베네 라이브 인 서울	악스 코리아	9월 22일	1544-1555
윤수일밴드 전국투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웅부홀	9월 17일	070-8851-8001
백두산콘서트 Since 1986 "나는 전설이다"	악스 코리아	10월 6~7일	1566-5490
클래식			
조수미 파크콘서트	올림픽공원 88마당 야외무대	9월 24일	1577-5266
2018동계올림픽유치 기념 폴포츠 콘서트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	9월 23일	033-764-1313
박람회			
2011 제3회 카페 베이커리쇼	부산해운대 센텀시티 벡스코	9월 22~25일	051-862-8810

9월 첫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8월 21일~8월 27일

곡명	가수
1 TV를 껐네… (Feat. 윤미래, 권정열)	리쌍
2 나란 놈은 답은 너다 (Feat. 하림)	리쌍
3 So Cool (쏘쿨)	씨스타 (Sistar)
4 Top Girl	G.NA
5 회상 (Feat. 백지영)	리쌍
6 안아줘요	10cm
7 UGLY	2NE1
8 부산여자	비
9 아버지	인순이
10 사랑보다 깊은 상처	박정현, 김범수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배워라 (Stay Hungry, Stay Foolish)
–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너희 늙어 봤어? 나는 젊어 봤다!"



일러스트·이철원

어디서 읽었던가 들었던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너희 늙어 봤어? 나는 젊어 봤다!"고 일갈(一喝)했다고 해서 '그것 참 말 된다'고 생각했었다. 젊어 본 사람만이 늙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늙은 사람은 한때 젊었다. 늙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진실을 끝내 실감하지 못한다. 그런데 요즘 세상 전체가 모든 이를 젊다고 간주하고 돌아가는 것 같다.

여든을 눈앞에 두신 아버지가 영화 〈고지전〉을 보고 싶어하셨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였으니 아버지의 영화관 나들이는 무려 7년 만의 일이었다.

아버지와 친구분을 대형 멀티플렉스에 모셔다 드렸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와 영화관이 한건물에 있는 복잡한 곳에서 아무래도 두 분이 고생하실 것 같았다. 좌석 배치도를 설명해 드리고 "영화 끝나면 모시러 올 테니 이 매점 앞으로 와서 기다리시라"고 했다.

빳빳하게 다린 모시 셔츠에 양복바지까지 갖춰 입은 두 분이 반바지에 슬리퍼 신은 젊은이들과 함께 영화관 안으로 사라질 때, 나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을 들여보내는 것과 비슷한 심정이 됐다. 주말의 복잡한 영화관 로비에서 두 분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그것은 기우(杞憂)였다. 영화 끝날 시각에 맞춰 영화관 로비에 가 보니, 북적대는 그곳에 두 분만 꼼짝 않고 섬처럼 서 계셨다.

얼굴은 "분명히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하는 표정으로 약간 상기돼 있었다. 그 얼굴은 언젠가 딸과 함께 대형 마트에 갔다가 "금방 올 테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본 딸의 얼굴과 흡사했다.

나는 생각했다. 왜 인생 황혼에 이른 아버지가 아직도 세상에 맞춰 사셔야 하는가. 세상이 아버지 세대에게 더 잘하고 편하게 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영화관엔 노약자 전용 카운터와 안내원이 있어야 하고, 컴퓨터는 국가에서 미리 가르쳐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좀 다른 경우지만, 이런 일은 공연장에서도 볼 수 있다. 왕년에 유명했던 해외 뮤지션이 한국을 찾아오는 일이 잦아지면서, 장·노년층 관객이 꽤 늘었다. 작년에 온 밥 딜런이나 올해 열린 이글스의 내한 공연이 그랬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의 신사들이 꽤 좋은 승용차를 타고 공연장인 올림픽체조경기장에 도착했다. 이들 상당수가 최고 33만 원짜리 VIP 티켓을 사서 모처럼 '젊은 날의 우상(偶像)'을 보러 공연장에 왔다.

그런데 난생 처음 온 공연장은 시장바닥과 비슷했다. 하염없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렸고, 들어가 보니 공연을 기다리며 앉아서 쉬거나 차를 마실 만한 공간이 전무(全無)했다. 화장실마다 20미터씩 줄을 서 있었다. 당시 공연장을 찾았던 이모(62)씨는 "VIP 티켓을 사고도 푸대접받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대개 민간 영역이니, 그들이 주 고객인 젊은 세대 위주로 운영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장·노년층을 문화에서 소외시키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모든 세대가 불편하지 않게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살기 좋은 나라다.

글·한현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 기자)

세계7대자연경관, 대한민국의 꿈!

국민 여러분의 손끝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11일 **제주**를 전세계인이 가보고 싶어하는
"제2의 로마"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합시다!


"초등 3년생 8년모은 돼지저금통 기탁"



"제주시내 모 식당 투표참여자 할인이벤트"


"자비로 서울강남역 무료광고 게재"

2002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 세계지질공원 인증

UNESCO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제주!

2011 세계7대자연경관



- 문자 투표 : ☎ **001-1588-7715**로 **제주** 전송 (150원)
- 전화 투표 : ☎ **001-1588-7715 → 1번 → 7715** (180원)
- 인터넷 투표 : **www.n7w.com** (투표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참조)

※ 문자 전화 투표는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 인터넷 투표는 이메일 계정수 만큼 가능.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회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낙동강 –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일대 (2003.09.13)

4대강살리기로
올 여름 백년만의 큰 비를 이겨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유원지



사업 전 (2006. 7. 18)



사업 후 (2011. 7. 12)

환경부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4대강살리기